

# 한국 고전소설 이야기 속 세상

엄태웅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 주차별 학습 내용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1	한국 고전소설 이야기 속 다양한 세상을 만나보자	1-1	한국 고전소설, 이야기 속 세상을 만나다
		1-2	일상적 시공간과 역사적 시공간
		1-3	새롭고 낯선 공간
		1-4	꿈속 시공간과 환상적 시공간
		1-5	깨달음의 시공간
2	일상적 시공간 : 〈사씨남정기〉 : 선과 악, 욕망과 이념의 가족이야기	2-1	가문소설 〈사씨남정기〉
		2-2	작가 김만중
		2-3	작품의 기본 정보
		2-4	통속적인 선악의 대립 구도
		2-5	개인적 부/도덕과 이념적 횡포의 공존
		2-6	통속적 서사와 사랑, 불륜
3	역사적 시공간 (1) : 〈최척전〉 : 17세기 동아시아 전란 속 국적을 초월한 인간애	3-1	전쟁, 가족의 생이별, 그리고 극적인 재회
		3-2	일본으로 간 옥영, 중국으로 간 최척, 베트남에서 기적적으로 만나다!
		3-3	새로운 시작, 그러나 다시 이별, 그리고 희망적인 재회
		3-4	믿을 수 없는 만남,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다
		3-5	국경을 초월한 이웃의 도움
4	역사적 시공간 (2) : 〈박씨전〉 : 병자호란으로 인한 상처의 낭만적 치유	4-1	병자호란과 〈박씨전〉
		4-2	역사와 허구의 서사, 〈박씨전〉
		4-3	〈박씨전〉만의 매력, 독자적 위치
		4-4	박씨, 그녀의 의미
		4-5	누가, 왜 〈박씨전〉을 향유하였을까?
		4-6	
5	새롭고 낯선 공간 (1) : 〈홍길동전〉 : 이상사회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	5-1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소설?
		5-2	홍길동은 실존 인물?
		5-3	〈홍길동전〉의 이해를 위하여
		5-4	홍씨 가문 내에서의 갈등
		5-5	국가 권력과의 갈등대결
		6-6	이상사회를 건설한 영웅 vs. 남의 나라를 소유하려는 침입자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6	새롭고 낯선 공간 (2) : 〈배비장전〉 : 중앙 관료와 지역민 간의 갈등과 화합	6-1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 그리고 〈배비장전〉
		6-2	배비장의 굳은 맹세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6-3	곤경에 빠진 배비장,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6-4	봉변을 당하는 배비장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6-5	〈배비장전〉에 나타나는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모습 - 관계주의와 주체성
7	꿈속 시공간 : 〈수성궁몽유록〉 : 꿈에서나마 내가 꿈꾸던 바가 이루어지기를	7-1	한국 고전소설과 꿈
		7-2	몽유록과 꿈속 세계
		7-3	첫눈에 반하다
		7-4	사랑을 위한 죽음
		7-5	이 작품의 의미 - 익숙함부터 새로움까지
8	환상적 시공간 (1) : 〈이생규장전〉 :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뛰어넘은 간절한 사랑	8-1	〈이생규장전〉은 어디에 실려 있으며 누가 썼을까요?
		8-2	오로지 사랑을 위하여
		8-3	전란도 세상의 운명도 거스를 수 없는 사랑
		8-4	운명의 벽 앞에서 더욱 빛나는 숭고한 사랑의 정신
		8-5	사랑 이야기에서 환상적 시공간이 갖는 의미
9	환상적 시공간 (2) : 〈심청전〉 : 간절한 염원과 소망의 실현,	9-1	심청이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까요?
		9-2	곳곳이 역경을 이겨내는 심학규와 심청
		9-3	사랑과 헌신
		9-4	보응과 기적
		9-5	주변 인물들 다시 보기
		9-6	관계의 윤리, 모두의 헌신
10	깨달음의 시공간 : 〈구운몽〉 : 불교 세상과 인간 세상의 엇섞임	10-1	〈구운몽〉 소개
		10-2	〈구운몽〉의 줄거리
		10-3	〈구운몽〉의 주제와 환몽구조
		10-4	환몽구조 중심의 분석을 넘어
		10-5	대중적 이본들의 서사와 주제

## 강좌 개요

### 강좌 개발의 필요성 및 적합성

전통적으로 동아시아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왔다. 특히 중세에는 동아시아의 보편 언어인 한자와 보편적 사상인 성리학을 기반으로 서로 간의 공유 영역을 확대해나갔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민족국가의 정체성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경험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간 것이 사실이다.

한국 고전소설은 특이하게도 중국을 시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작품이 많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국 고전소설의 향유자들이 중국의 중원을 문명의 공간으로 인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아울러 동아시아는 상처의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 한국 고전소설에는 동아시아 전쟁의 상흔과 그것의 극복을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한반도에게 동아시아는 가까우면서도 직접 경험하기는 어려운 공간이었다. 이에 동아시아의 시공간을 상상적으로 구현한 경우도 보인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고전소설에 재현된 동아시아의 시공간을 통해, 한국을 배우려는 외국의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강좌의 학습목표

- 한국 고전소설의 주요 작품을 시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동아시아가 공유했던 역사적 시공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자국의 고전소설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 기대효과

일차적으로 강의를 들은 학습자들이 강의에서 소개된 고전소설의 주요 작품의 줄거리, 인물,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시공간적 배경’이 주제 구현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줄거리 이해를 넘어서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깊게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과 그 문화를 접해보려는 외국의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1주차

한국 고전소설 이야기 속  
다양한 세상을 만나보자

##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한국 고전소설, 이야기 속 세상을 만나다
2차시	일상적 시공간과 역사적 시공간
3차시	새롭고 낯선 공간
4차시	꿈속 시공간과 환상적 시공간
5차시	깨달음의 시공간

## 1차시 한국 고전소설, 이야기 속 세상을 만나다

### 학습 목표

- 배경이 작품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 배경의 다양한 양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 고전문학, 그중에서도 한국 고전소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엄태웅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인에게도 고전문학은 그리 반가운 주제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선뜻 수강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강좌에서 여러분은 한국 고전소설에 펼쳐진 세상, 그러니까 한국 고전소설 속 배경을 중심으로 9편의 작품을 함께 읽어나가며 작품의 특징을 공부해나갈 것입니다. 소설이라면 소설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인물도 있고 사건도 있는데 왜 하필 배경을 중심으로 고전소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설에서 배경의 역할이나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소재를 중심으로 연상해봅시다. 작품 속 배경이 어둡다면 작품의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지겠죠? 반대로 작품 속 배경이 밝으면 작품의 분위기는 한층 가벼워집니다.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시각적 콘텐츠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사랑하는 여인이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라면 대개 밝고 화사한 조명이 사용됩니다. 반대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에서는 어두워서 실루엣이 잘 드러나지 않는 조명이 사용됩니다.

이렇듯 배경은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죠. 배경이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게 조성된다는 것은 그 배경이 작품 속 사건의 전개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다음 날 전쟁을 앞둔 군인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날 밤은 매우 소중한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옆에 있는 아끼는 동료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죠. 이날 밤의 분위기는 소설에서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이 팽배한 상황으로 묘사될 것입니다. 이렇게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배경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조응할 수 있도록 설정하죠. 이때 배경은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경이 하는 역할이 이분일까요? 다시 한번 전쟁을 앞둔 군인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 군인은 이날 밤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네, 매우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밤을 소중하게 느끼는 군인의 심리는 어떠할까요? 불안함이 제일 클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크겠죠. 만약 개인의 목숨이나 안위보다 전쟁의 승리가 중요하다면 그와 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내일이 와서 꼭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하는 마음일 겁니다. 이럴 때도 역시 배경은 인물의 심리를 강조하는 데 활용되곤 합니다.

배경이 작품 속 주요 요소와 맺고 있는 관계는 이렇듯 긴밀합니다. 사건과도 인물과도 관련을 맺고 있죠. 사실 인물과 사건 그리고 배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과 사건 그리고 배경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네, 당연히 하게도 작품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작품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죠? 네, 바로 작품의 주제입니다. 결국 이 배경이라는 것도 작품의 주제를 부각하는 데 기여하는 대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배경은 인물이나 사건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는 요소가 아니라 인물,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소설의 요소입니다. 이렇듯 배경을 탐색하는 것은 곧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고전소설에 주로 설정되는 배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쉬운 것부터 떠올려봅시다. 일단 일상적인 공간이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소설은 우리의 삶을 담아내니까요. 고전소설에서도 일상적 시공간을 배경으로 삼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경험한 시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으로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시공간일 것입니다. 한국 고전소설에서 역사적 시공간은 그리고 역사적 사건은 단골 메뉴입니다. 특히 전쟁과 같이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각인된 사건이 자주 등장합니다. 세 번째, 실제로 경험한 시공간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닿는다면 경험해볼 수 있는, 그래서 호기심 가득한 시공간도 등장합니다. 새롭고 낯선 공간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언급해드린 세 가지 배경은 실제로 경험을 했던 그렇지 않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배경인 셈이죠. 그런데 고전소설에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배경만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인간이 늘 경험하는 행위, 즉 꿈을 통해 새로운 배경이 펼쳐지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꿈속 시공간이 이에 해당 되겠죠. 고전소설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꿈속 시공간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환상적 시공간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현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환상적 시공간은 그곳

이 현실과는 다른 환상적 무대라는 그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환상의 모호한 경계성으로 인해 작품은 더욱 흥미롭게 전개되죠. 그런데 이러한 모호함이 극에 달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바로 <구운몽>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두 세계가 어느 것이 현실이고 어느 것이 환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상적 시공간이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신 고전소설 속 세상 어떠신가요? 흥미로울 것 같지 않으세요? 저의 바람을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옛이야기이다 보니 요즘 이야기에 익숙한 분들은 흥미를 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야기는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이야기는 여러 지역과 세대를 거치며 생존의 가능성을 수시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도 통할 수 있는 것이죠. 본질로 들어가 보면 옛이야기나 요즘 이야기이나 통하는 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배경을 소개하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작품은 대부분 이 강좌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 【참고문헌】

- 한국고소설학회, “한국 고소설 강의”, 돌베개, 2019.
-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출판부, 2002.



## 2차시 일상적 시공간과 역사적 시공간

### 학습 목표

- 일상적 시공간의 대표적 공간 배경을 알아보고 그에 해당하는 작품을 파악할 수 있다.
- 역사적 시공간의 조성 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해당하는 유형과 작품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배경 중 먼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물리적 시공간을 그 배경으로 삼은 그런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착해 있는 일상적 시공간부터 말씀을 나눠볼까요? 일상적 시공간. 그렇다면 조선 시대에 일상적 시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사실 그 범위를 한정한다는 것은 무리이겠죠. 조선 시대의 시간적 범위는 엄청 넓고 지역적 범위도 결코 좁지 않습니다. 그 넓은 시공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그들이 경험한 하루하루가 모두 일상입니다. 그러니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일상적이라고 할 때에는 특정 시대나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조선 시대 하면 떠오르는 모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를 고전소설의 시공간과 결부지어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간 배경은 ‘가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 시대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나 가족의 이동이 빈번하지 않았죠. 흔히 중세 혹은 봉건 사회를 토지에 결박된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한 느낌이 강합니다. 오히려 당시 사람들은 주어진 토지를 바탕으로 삶을 안정되고 알차게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태어난 곳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아 가족을 이뤘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거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주거 문제 때문이죠. 그만큼 집을 구하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본다면 토지를 바탕으로 둔 조선의 사회 질서가 어쩌면 더 나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정 혹은 가문은 조선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의 가정보다 훨씬 더 구성원이 많았고 그래서 가문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비단 사적인 관계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가 두루 존재했죠. 이러한 관계가 미치는 파장 또한 가법지 않았습니다. 가문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 사회,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그런 구조적 인식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한국의 고전소설 중에는 ‘가문소설’이라 불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

들은 말 그대로 가문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조선 시대는 흔히 가부장제 사회라고 하죠. 가부장제 권력의 정점에는 가부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문의 구성원들은 가부장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자신의 위상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가문의 특성은 그대로 고전소설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가문소설에서는 늘 가문 구성원 간의 갈등이 등장합니다. 갈등의 주인공은 보통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중에서도 가부장과 긴밀한 관계, 즉 가부장의 본처이거나 후첩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가부장으로부터 신임을 얻거나 얻은 신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갈등은 대개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결말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인 셈이죠. 그런데 가문 소설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권선징악으로 끝나는 사실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 갈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살펴보는 것이겠죠. 마치 한국의 막장드라마가 결론이 다소 뻔한 듯하면서도 사람들이 매회 드라마를 챙겨보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결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도 사람들이 드라마를 찾는 이유는 결국 그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가문소설의 특징을 보여주는 수많은 작품 중 저는 <사씨남정기>라는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흔히 가문소설이 17세기부터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사씨남정기>는 바로 17세기에 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가부장인 유연수가 등장하고 유연수라는 인물을 놓고 본처인 사씨와 후첩인 교씨가 갈등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제가 갈등을 벌인다고는 했지만, 갈등을 유발하는 자는 오로지 교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씨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씨를 집 밖으로 내쫓고 급기야 사씨를 없앨 계획까지 세웁니다. 교씨가 이렇게 잔인한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가문이라는 공간이 지닌 구조적 특성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가문을 이을 존재, 즉 가부장을 계승할 아들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가문에 시집온 여성들에게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목표라는 것은 이루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본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또 부인을 얻어서라도 꼭 아들을 낳으려 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부장 한 명에 부인과 첩을 포함한 여러 부인이 함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 아들을 낳은 부인은 가문 내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사씨남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씨는 본부인이지만 자식을 낳지 못해 교씨가 이 가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씨는 결국 아들을 낳아서 인정받게 되죠. 그러나 이후 사씨 또한 아들을 낳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됩니다. 요컨대 가문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생활 무대이자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았습니

다. 이 갈등은 고전소설에서 다양한 사건으로 표출됩니다. <사씨남정기>를 통해 가문이라고 하는 일상적 시공간이 한국 고전소설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 시공간처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는 역사적 시공간이 활용된 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시공간 중에서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에 강하게 각인된 시공간, 그러니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시공간이 고전소설의 배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 하면 다른 나라의 침입, 그중에서도 특히 16~17세기에 걸쳐 주변 국가인 일본과 청나라가 순차적으로 조선을 침공한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임진왜란은 일본이,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한 것인데요. 두 나라 모두 조선의 침공을 한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에 정유재란을 일으켰고 청나라의 병자호란 이전에는 정묘호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앞선 침공인 임진왜란부터 가장 마지막 침공인 병자호란까지 이 네 차례의 침공이 불과 4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조선을 침입한 전쟁만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조선군은 여러 차례 외국의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니 조선 사람들의 DNA에 그 상처가 각인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조선은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고 사회도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매우 많이 창작됩니다. 전쟁 직후에만 창작되고 그친 것도 아닙니다. 조선 후기 내내 이들 작품이 널리 향유됩니다. 이 수업에서는 그중 두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소개할 작품은 <최척전>입니다. 이 작품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즉 일본의 조선 침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로 가족을 설정합니다. 이들 가족은 조선을 침입한 일본군에 의해 뿔뿔이 흩어지며 결국 서로의 생사도 모르게 되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어느 곳으로 갔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던 가족들이 대부분 다시 재회합니다. 재회의 장소도 매우 독특합니다. 나중엔 결국 모두 조선에 모이게 되지만 그전에는 베트남, 중국, 조선의 또 다른 지역 등 동아시아의 여러 장소에서 가족들이 극적으로 생환합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그것도 여러 차례 벌어진 것이죠.

가족의 극적인 상봉은 이 작품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전쟁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넣으며 이 상황을 떠올려보면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눈시울이 붉어지죠.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한 그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감동은 비단 가족들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가족들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 과정을 추적해보면 거기에는 늘 ‘주변인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인들은 누구였을까요? 하나같이 국적이 다른 외국인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 당시는 동아시아 전쟁이 벌어진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나라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고 다른 나라 사람의 삶을 챙겨준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적어도 이 작품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국적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사람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대했습니다. 전쟁을 배경으로 삼았다고 해서 상대국와의 치열한 전투 장면이 나오는 작품만 생각하셨을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광경이 이 작품에는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상처가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조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국적의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는 내용의 소설을 창작하고 또 향유한 것일까요? 이후 작품을 구체적으로 감상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릴 또 다른 작품, 그것은 바로 <박씨전>입니다. 이 작품은 청나라의 침공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였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박씨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박씨는 병자호란을 이끌었던 청나라 장수 용골대를 비롯하여 그 일당들을 혼내주는 인물입니다. 여성이 혼자서 청나라 군대를 상대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 작품 속에는 병자호란으로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하는 역사적 사실과 박씨라는 허구적 인물이 활약하여 청나라 세력을 혼내주는 상상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합니다.

혹시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 전쟁은 전쟁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조선의 국방력이 약했던 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 능력을 갖춘 청나라를 적절하게 대응할 준비가 조선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은 순식간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조선의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서 고립되어 있던 인조는 결국 항복을 선언합니다. 최근에 <남한산성> 등 영화를 통해서도 소개된 적 있는 이 병자호란은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박씨전에서는 박씨가 잠시나마 청나라 세력을 혼내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박씨는 비록 가상인물일지라도 혹시 다른 장수가 청나라를 마치 박씨처럼 일시적으로라도 혼내준 경우가 있었을까요? 의병들의 저항은 있었지만 박씨처럼 완벽하게 이들을 제압한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박씨라는 인물도 허구이고 그 인물이 청나라를 잠시나마 제압했다는 사실도 완전히 허구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사람들은 왜 병자호란이라는 배경을 등장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여성인 박씨를 내세웠고 비록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그 와중에 잠시나마 청나라에게 설욕하는 내용을 넣게 되었을까요? 이후 진행될 수업에서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 한국고소설학회, “한국 고소설 강의“, 돌베개, 2019.
-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출판부, 2002.
- 류준경, “사씨남정기“, 문학동네, 2014.
- 박희병, 정길수,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 이상구, “박씨전, 금방울전“, 문학동네, 2018.
- 권보드래, 김수미, 김준현, 엄태웅, 이명현, “사랑과 불륜의 문화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3차시 새롭고 낯선 공간

### 학습 목표

- 새롭고 낯선 공간이 갖는 의미에 대해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일상적 시공간, 역사적 시공간은 고전소설 속 배경으로써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당시 고전소설을 창작하고 향유했던 사람들의 기호와 맞물려 있는 것이겠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 대한 관심은 나 혹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 대한 관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의 공간도 고전소설의 배경이 되었죠. ‘새롭고 낯선 공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울도국, <배비장전>에 등장하는 제주도를 새롭고 낯선 공간이라는 테마로 묶어보았습니다. 사실 이 두 공간은 매우 이질적으로 보입니다. 울도국은 흔히 이상사회로 평가를 받고, <배비장전>에서 제주도는 주인공인 배비장이 봉변을 당하는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공간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떠오르는 생각도 있네요. 두 곳 모두 ‘섬’입니다. 고립된 공간이죠,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된 공간이고요. 이렇듯 이 두 곳은 주인공이 그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그곳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더구나 이 두 곳이 주인공에게 새롭고 낯선 공간이라는 점만 공통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줄거리 위주로 두 작품을 접해보신 분들은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매우 순탄하게 울도국에 정착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동과 그의 무리는 울도국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원주민들과 적지 않은 갈등을 벌입니다. 반대로 <배비장전>의 배비장은 제주도에서 매번 봉변만 당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줄거리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배비장은 제주도 사람들과 친해지며 높은 관직에도 오릅니다. 결국 두 곳은 주인공에게 새롭고 낯선 공간이면서 지역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벌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력에 의한 것이든, 화합에 의한 것이든 결국 두 인물은 그곳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죠.

이렇게 볼 때 두 작품 속 새롭고 낯선 공간은 신분적 우위나 권위를 갖고 있는 주인공이 그곳으로 들어가 내부 구성원과 갈등을 겪은 뒤에 그곳의 주체 혹은 일원으로서 생활하게

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홍길동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작품입니다. 이제는 이 말을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공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만나는 작품이다 보니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도 이 작품을 모르지 않습니다. 어떤 외국인 학생들은 저에게 홍길동전의 주인공 특성과 줄거리를 막힘없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이 작품의 진짜 모습을 알기 보다는 사람들에 의해 한 차례 의미가 정립된 정보를, 정리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홍길동전〉의 이야기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나요? 누군가의 설명을 들었나요? 아니면 동화책 같은 것으로 읽었나요? 이러한 방식으로 홍길동전을 접한 것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 원문이 정리된 것이 아닌 한 차례 가공을 거치는 경우에는 원작의 특징을 제대로 옮겨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홍길동전〉이 그러 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홍길동이라는 인물과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 고민하기보다는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따라가는 데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홍길동은 의적이고 율도국 정벌은 이상사회 건설이라는 것을 마치 공식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를 입시 준비하며 외우게 되는데요. 사정은 외국인 학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매체에서 〈홍길동전〉의 특징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니까요.

자, 〈홍길동전〉이 정말 저와 같다면 이 작품은 의로운 주인공이 가난하고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 의적 행위를 하고 결국 이렇게 선한 뜻을 갖고 있던 주인공이 새로운 곳에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버전이든 상관없으니까 실제 작품의 전개 양상을 직접 한번 보시겠어요? 홍길동이 처음에는 남을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이러한 행동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홍길동의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영향력도 커진 뒤에는 의로운 행동이라기보다는 국가 및 임금과 협상을 하기 위한 행동을 펼칩니다.

이때 홍길동의 행적은 읽는 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도국 정벌은 그간의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율도국 정벌이 이상사회 건설이라면 말 그대로 이곳을 이상적인 사회로 건설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 정벌은 처음부터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홍길동과 그의 무리는 이곳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홍길동 일당이 왜 자신들을 공격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율도국의 장수는 죽



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곳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율도국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점령군이 들어온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홍길동의 율도국 정벌을 이상사회를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확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율도국을 공간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상사회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이라 말하려 합니다. 〈홍길동전〉의 궁극적 지향이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은 이상사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이 구현한 세상, 즉 배경이 이 작품의 주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배비장전〉에 대해 말씀드리보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새롭고 낯선 공간이라는 테마로 〈홍길동전〉과 함께 〈배비장전〉을 살펴볼 것입니다. 〈배비장전〉은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적어도 한두 차례는 있을 겁니다. 〈배비장전〉은 한국에서 마치 전래동화처럼 많이 읽히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외국인인 경우에도 한국을 접하며 이 작품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또한 〈홍길동전〉과 마찬가지로 원문이나 원문의 번역을 직접 접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 여러 차례 정리된 내용, 그러니까 2차적으로 가공된 내용을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2차 가공된 〈배비장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주로 배비장이 골탕을 먹는 내용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살던 배비장은 제주도 부임을 명받고 바다를 건너 제주도에 갑니다. 제주도에선 예쁜 여성이 많은 데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가야 하니 아무래도 여성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죠. 배비장은 결코 여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생 애랑에게 흠뻑 빠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 작품을 직접 봐도 작품의 상당 부분이 배비장이 골탕을 먹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한국의 고전소설은 물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고전을 읽을 때는 주의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전은 어떤 면에서는 불친절한 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배비장전〉을 예로 말씀드리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는 물론 배비장이 골탕을 먹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그런 내용만 있지 않습니다. 작품 중간중간에 제주도와 제주도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배비장의 편견과 마주치게 됩니다. 배비장이 이 지역 사람과 문화를 폄하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죠. 이 작품에서 배비장이 여색을 멀리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여성을 가까이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제주도의 문화를 경멸하

는, 무시하는 그런 시선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기생과 어울리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 작품에서는 배비장이 기생을 멀리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비장이 골탕 먹는 이야기에만 주목하다 보면 이렇듯 그가 제주도를 바라보는 태도 같은 것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 2차적으로 가공된 이야기에는 이런 특징이 잘 안 나타나는 것이죠. 이는 고전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비장은 발령을 받아 제주도에 간 것이죠? 그런 그가 심하게 골탕을 먹고 나서 제주도를 떠났을까요, 아니면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배비장전>을 줄거리 중심으로 공부한 분들에게는 이 결말부에 대한 기억이 흐릿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 강조되지 않으니까요. 배비장은 제주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머물다가 어느 날 배비장은 정의현감을 명받게 됩니다. 정의는 제주도 한 지역의 이름이죠. 현감이라면 그곳의 관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주도에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한 그가 어떻게 현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중앙관료가 지역민들과 공존하는 가운데 그들의 문화로 편입되어간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작품에서도 역시 작품의 무대가 되는 제주도라는 배경이 작품의 주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 세계, 그곳을 배경으로 한 고전소설의 유형과 그 유형 중 이 수업에서 다루게 될 작품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에 비해 고전소설의 배경이 훨씬 더 다양하다고 느끼셨나요? 아직 절반 정도밖에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문헌】

- 한국고소설학회, “한국 고소설 강의”, 돌베개, 2019.
-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출판부, 2002.
- 김일렬, “한국고전문학전집 25 홍길동전, 전우치전, 서화담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6.
- 김유범, 임태웅, “고전소설 이본 간의 시간성, 지역성과 국어교육적 활용 방안”, “한국어문교육 39,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2.
- 김기형, “한국고전문학전집 35 적벽가, 강릉매화타령, 배비장전, 무속이타령, 웅고집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5.

## 4차시 꿈속 시공간과 환상적 시공간

### 학습 목표

- 꿈속 시공간, 환상적 시공간이 단지 배경에 그치지 않고 주제와 긴밀히 연결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현실 세계의 시공간, 그곳이 고전소설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도 소개했구요. 그런데 고전소설에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배경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꿈속에서 만나는 공간, 인간이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공간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당연히에도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들은 현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현된 것이죠. 따라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꿈속 시공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꿈을 꾸니다.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지만 그중에는 내가 현실에서 느낀 결핍이라든가 바람 같은 것이 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현실과 꿈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만약 소설에서 어떠한 장치로 활용한다면 그 경우에는 주인공 나의 현실과 꿈속 연관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만약 주인공이 꿈을 꾸었다면 그것은 주인공의 삶 어느 국면과 관련을 맺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꿈을 개꿈, 이렇게 부르는데요. 소설에 이런 꿈이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의미심장한 꿈을 꾸기 마련이죠. 꿈은 이렇듯 소설에서 의미심장합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전소설로만 한정해도 꿈의 유형과 기능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그 모든 유형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중 대표적으로 ‘몽유록’의 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몽유록은 한국 고전소설에서만 확인되는 매우 독특한 유형의 소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몽유록은 이른바 ‘환몽구조’라는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환몽구조에서 주인공은 현실에 있다가 꿈을 꾸어 꿈속 세계로 진입하고 꿈에서 깨어난 뒤에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때 주인공의 정체성이 어떻게 유지 혹은 변모되는지도 꽤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몽유록에서 주인공의 정체성은 현실이든 꿈속이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한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꿈속 세계로 들어가고 다시 꿈에서 깨어날 때도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꿈을 꿀 때나 꿈에서 깬 때 주인공의 정체성이 막 바뀌며 이야기의 흥미를 더해가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몽유록의 유형은 분명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이 현실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있는 그대로 꿈속에도 가져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인공이 현실에서 갖고 있었던 불만, 결핍 혹은 바람을 꿈속에서 본격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몽유록 작품을 보면 꿈속에서 늘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체로 주인공의 뜻에 맞는 사람, 주인공의 처지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꿈속에 들어가서 내가 현실에서 풀기 어려웠던 것을 풀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몽유록에서 꿈속 세계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이 수업에서 다루게 될 작품인 <수성궁몽유록>도 꿈속 세계에서는 현실에서 풀어내지 못한 주인공들의 바람이 실현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진사와 운영은 현실에서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가엾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요. 현실에서는 영영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꿈속에서는 웃으며 만납니다. 꿈속에서는 그 소망이 실현된 것이죠. 그렇기에 작품에서 꿈속 무대는 매우 길게 펼쳐집니다. 시공간의 배경이 곧 작품의 주제의식 구현의 장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환상적 시공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꿈’이라는 것은 환상이면서도 현실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말 그대로 환상적인 시공간들도 존재하죠. 그러한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환상적 시공간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살펴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사라져버린 환상적 시공간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상의 세계와 바닷속 세계의 경계가 사라져버린 환상적 시공간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사라져버린 환상적 시공간은 주인공이 죽은 상황에서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에 해당하는 작품 중 <이생규장전>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고전소설을 대표하는 김시습의 소설집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섯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한문소설이고요, 제목 역시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뜻을 풀이하면 ‘이생이 담장을 엿보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생은 왜 담장을 엿보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요? 요약적으로 소개해드리자면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이였던 이생과 최낭 중 최낭이 전란의 와중에 목숨을 잃고 그런 두 사람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초월하여 다시 만나 한동안 깊은 사랑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이승과 저승, 인간이라는 매우 범속한 존재들은 이승과 저승이 각각 갈 길이 다르다는 것

을 알 뿐 두 갈래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저승이라는 공간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생과 최낭은 그 경계를 초월하여 만남을 이루어냅니다. 그들이 만나는 무대는 최낭이 살아있을 적 그 공간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냥 똑같은 인간 세상같지만 최낭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들이 만나는 무대는 인간 세상이 아닌 환상적 시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승은 이승대로 저승은 저승대로 존재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세상의 법칙을 깨면서까지 이승과 저승 속 각각의 존재가 경계를 초월하여 만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여러분들도 쉽게 예상하실 수 있듯 그만큼 이들의 사랑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의 감정이 보편적인 세상의 질서를 어겨야 할 만큼 강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 속 환상적 시공간은 단순히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주제인 두 남녀의 사랑에 대한 염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즉 시공간의 설정은 주제 구현과 매우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한국 고전소설에는 천상과 지상이라는 이원적 세계관이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원적 세계관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생규장전>은 이승과 저승이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승과 저승이라는 바꿀 수 없는 이 조건을 인간 그 두 남녀가 스스로 극복하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환상적 시공간은 <심청전>의 시공간입니다. 이 작품 역시 한국을 대표하죠? 얼마 전 세계적인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의 한 대학생이 이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 'DIVE'를 소개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만큼이나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심청전>을 아시는 분들은 왜 이 작품을 환상적 시공간에서 소개하는 것일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작품은 주제나 이념을 고려할 때 자식의 지극한 효심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이 작품의 배경은 그저 조선 후기의 현실을 담아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단지 이 작품의 무대가 어디 이냐를 고민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떠한 무대에서 실현되느냐를 고민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심봉사와 심청이가 살던 마을은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실현되는 무대는 아닐 것입니다.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심청의 염원이 실현되는 공간은 바닷속을 다녀온 심청이가 황후, 그러니까 황제의 부인이 된 뒤에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는 곳일 것입니다. 이곳은 맹인잔치가 벌어진 인간 세상의 현실 어딘가이지만 사실 이러한 무대가 만들어지기까지 심

청이가 겪은 경험을 고려하면 이곳이 단순히 현실의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기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실제로 심봉사는 이곳에서 눈을 뜨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믿기 어려운 경험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본다면 <심청전>에서 핵심적인 시공간은 바로 심청이가 경험한 바닷속 용궁이며 황후가 되어 경험한 공간 또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황후가 되어 경험한 공간 또한 환상적 시공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꿈속 시공간, 환상적 시공간,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허구적 시공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 꿈속 시공간의 대표작으로는 <수성궁몽유록>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 작품이 몽유록의 대표작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고전소설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환상적 시공간의 대표작으로는 <이생규장전>과 <심청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배경으로 설정한 작품들이 이 무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문헌】

- 한국고소설학회, “한국 고소설 강의”, 돌베개, 2019.
-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출판부, 2002.
- 박희병, 정길수, “사랑의 죽음”, 돌베개, 2007.
- 박희병, 정길수, “끝나지 않은 사랑”, 돌베개, 2010.
- 정하영, “한국고전문학전집 13 심청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3.

## 5차시 깨달음의 시공간

### 학습 목표

- 깨달음의 시공간에서 작품의 무대는 어떻게 조성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 수업에서 살펴볼 마지막 시공간은 ‘깨달음의 시공간’입니다. 이 시공간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두 종류의 세계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두 세계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속하는 그런 종속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꿈속 시공간처럼 꿈속 세계가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된 무대라면 그것은 꿈속 세계가 현실 세계에 종속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환상적 시공간처럼 두 세계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상태,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 지상과 바다의 세계가 경계를 무너뜨린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 엄연히 다른 두 세계를 한 인간이 동일한 정체성으로 넘나드는 것이겠죠.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깨달음의 시공간은 한 인간이 동일한 정체성으로 두 세계를 넘나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한 인간이되 한 인간이 아닌, 동일한 정체성인 것 같으면서도 정체성이 다른 그런 채로 두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일단 전제되어야 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렇게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존재,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정체성은 상호연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또 무슨 소리일까요?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죠? 바로 구체적인 작품 소개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의 시공간으로 소개할 작품은 바로 김만중의 <구운몽>입니다. 이 작품에는 불교 세계의 성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성진은 열심히 노력하는 수행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번민이 찾아옵니다. 팔선녀, 그러니까 8명의 선녀를 만나서 인간의 정욕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자 성진의 스승 육관대사는 그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때 팔선녀도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내려집니다. 자, 성진과 팔선녀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졌다. 그렇다면 이들은 성진과 팔선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진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인간 세상에 내려진 성진은 인간 세계에서 양소유로라는 인물로 태어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양소유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옛날 성진의 모습을 점차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곧바로 모든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양소유는 성진과 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진의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존재,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성진과 양소유가 두 세계에서 엄연히 다른 존재이고 다른 정체성이니 그냥 둘을 분리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간단치 않습니다. 이 두 존재는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의식하기도 합니다. 양소유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성진의 삶을 어렴풋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결국 그 뒤에 양소유는 다시 성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단순히 서로 다르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작품에서는 두 개의 시공간이 등장합니다. 불교의 세계, 인간의 세계. 이 두 세계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종속되지도 않고 양쪽이 전혀 별개의 세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공간은 하나이면서 별개이고 별개이면서 하나입니다. 그 속에 존재하는 등장인물의 면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진과 양소유는 하나이면서도 별개이고요, 별개이면서도 하나입니다. 불교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엮인 것이죠.

이 강좌에서 배경을 중심으로 삼아 작품을 분류한 것은 배경의 특징이 작품의 주제에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미묘한 두 개의 시공간은 이 작품의 주제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요? 구운몽의 주제를 인생무상으로 알고 계신 경우도 많은데 이 작품의 주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는 참된 이치를 깨닫는 것, 그것이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성진은 양소유의 삶을 살고 돌아온 뒤에 자신이 인간의 욕망이 덧없는 것임을 스스로 깨달습니다. 그러자 육관대사는 성진에게 인간 세계를 부정하고 불교 세계를 긍정하는 것은 하나를 참, 다른 하나를 거짓으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사고라고 말하면서 인간 세계와 불교 세계 중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성진 너는 구별할 수 있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장자의 호접지몽을 비유로 들면서요. 이에 성진은 자신이 아직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다시금 수도를 닦으며 정진합니다. 결국 복잡미묘한 관계를 지닌 두 개의 시공간은 그 시공간이 어떤 시공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 개의 시공간이 각각 의미를 지닌 채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고 그래서 무엇을 옳고 무엇을 그르다. 무엇을 좋고 무엇을 나쁘다라고 빨리 답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덧없는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바로 그러한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느냐는 것이죠. 이 작품의 취지가 그렇다면 결국 이 작품에서 시공간은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든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든 눈앞에 펼쳐진 어떤 무

대로서의 시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공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내면의 인식 세계입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무수한 세계, 우리는 그 여러 세계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이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싫다고 여기는 순간 이 자세는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운몽>은 이렇게 내면의 인식 세계를 등장시키고 깨달음을 유도합니다. 작품에는 두 세계의 화려한 모습이 펼쳐지지만 이 작품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여러 세계가 공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를 옳고 다른 하나를 틀리다고 하는 인식은 인간을 근원적인 회의에 들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즐거움은 옳고 슬픔은 틀리다고 한다면 즐거운 대부분의 시간에는 이 인식이 우리를 기쁘게 하겠지만 가끔씩 슬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삶은 옳고 죽음은 틀리다, 삶은 좋고 죽음은 나쁘다고 한다면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들에는 이 모든 것이 기쁨이겠지만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깊은 회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양가적인 사고를 견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미미한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을 모두 경험해야 하니까요.

이렇듯 <구운몽>은 다소 어렵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이처럼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고민해볼 기회는 많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제시한 두 개의 시공간은 이 작품의 주제적 지향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수업에서 다뤄볼 고전소설 속 시공간을 여섯 개 정도 유형으로 나눠 살펴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개별 시공간의 특징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하나하나 만나며 각각의 작품이 지닌 매력에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한국고소설학회, “한국 고소설 강의”, 돌베개, 2019.
-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출판부, 2002.
- 정규복, “한국고전문학전집 27 구운몽”,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6.
- 정길수, “구운몽”, 돌베개, 2017.
- 엄태웅, “대중들과 만난 구운몽”, 소명출판, 2018.

- 엄태웅, “구운몽의 주제와 그 구현 양상“, JOURNAL OF KOREAN CULTURE 51,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0.

# Lecture

## 1차시 한국 고전소설, 이야기 속 세상을 만나다

Hello, everyone. I'm Eom Tae-ung,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I study and teach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specially Korean classical novels. It's a pleasure to meet you, and I'd like to thank you for taking this class.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s difficult even for Koreans, but you have decided to take this class, so I will do my best to make it interesting.

In this course, we'll be reading 9 Korean classic novels together, focusing on the worlds represented in the novels, that is, the settings of the novels, and study their characteristics. When there are important elements of a novel like characters and events, why are we focusing on the setting of classic novels? First, we need to answer this question.

What is the role or function a setting generally plays in novels? Let's not get too technical and put it into easy terms. If the setting is dark, the mood of the story will feel heavy, and conversely, if the setting is light, so is the mood of the story. This is more evident in visual content like dramas and movies, right? If you're watching a woman in love go on a date, the lighting is usually bright and colorful. On the other hand, a scene where a criminal is committing a crime will have darker, less silhouetted lighting.

This is how the background sets the overall mood of the piece. When we say that the setting fits the overall mood, we mean that the setting is not separate from the events of the story. Let's take an example. Imagine a soldier who is about to go to war the next day. For him, this night is very important: if he goes to war, he could be wounded or even killed. Perhaps a close comrade will pass away. The atmosphere of this night will be described

in the novel as a quiet, yet tense situation. By describing the setting in this way, you're also setting the scene for the events to come. The setting serves to give context to the events that are about to unfold.

Is that all the setting does? Let's bring back the soldier who's about to go to war. We've already talked about how precious this night is going to be. What's going on in the soldier's mind on this precious night? I'm sure he's feeling quite anxious. He might even hope that tomorrow doesn't come. If victory is more important to him than his personal life or safety, he might have the opposite feeling. He might still feel anxious, but he wants tomorrow to come and he really wants to win the war. Again, settings are often used to emphasize a character's psychology.

So there's an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the setting and the other main elements of the work. The setting is related to the events and the characters. In fact, a good work harmonizes the setting with the events and characters. So why are they so important? Well, naturally, it is because they make sure what you're trying to say in your work is clear. What's another word for 'the message behind a work'? It's the theme of your work. In other words, the setting serves to emphasize the theme. In this sense, the setting is not a less important element than the characters and events, but rather an element of fiction that should be recognized as equally important as the characters and events. So exploring the setting is to understand the work.

Then, what are some common settings for classic novels? Let's start with the easy ones. First, everyday space could be the setting too, right? After all, novels are about our lives. And many classic novels are set in everyday time and space. Second, the next thing that comes to mind in terms of experienced time and space is historical time and space. In Korean classic novels, historical events are regularly featured, especially events that are deeply imprinted in people's memories, such as wars. Thirdly, there is also the anticipatory space and time, which we haven't actually experienced but we may someday because it exists around us. It's a new and unfamiliar space.

The three settings I've mentioned so far actually exist in the real world that we live in, whether we've actually experienced them or not. They're physically

present. But there's more to the settings in classic novels than just the physically present settings. First, consider the case where a new setting unfolds through a regular humanly activity: dreaming. This is what we call time and space in dreams. In classic novels,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time and space in dreams. The second is the fantastic time and space. A dream presupposes reality, but fantastic time and space does not clearly present th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fantasy. This blurring of reality and fantasy makes the story more interesting. There are also some works where there is extreme blurring. This is the case with 'Goo Oon Mong', wher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ich of the two worlds is real and which is fantasy. This time and space falls into our third category.

What do you think of the world represented in classic novels? Don't you think it's interesting? I feel like I'm forcing you to be interested. I think the old stories are probably less interesting to people who are used to today's stories. But stories are always created based on people's lives, and those stories are constantly evaluated for viability across regions and generations. That's why the stories that have survived so far can still resonate with us. In essence, old stories and modern stories have a lot in common. Today, I'll introduce you to some of the different settings in classic novels and some representative novels of each type of setting. Most of the works will be introduced more specifically throughout the course, so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

## 2차시 일상적 시공간과 역사적 시공간

---

Let's take a look at the different types of settings in Korean classic novels, starting with the ones that are set in the real-world, physical time and space. Let's start with the one that's closest to our lives: everyday time and space. So what did everyday time and space look like in the Joseon Dynasty? Actually, it would be impossible to define its scope. The temporal scope of the Joseon Dynasty is very large, and the geographical scope is by no means small. Countless people lived through this immense time and space, and the every day life they experienced adds to the scope. So it would be impossible to define its scope. However, when we say "everyday," we usually think of something typical of a certain era or society.

So what do we think of about the Joseon Dynasty? When we think about this in relation to the time and space in classical novel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the spatial setting, the family. As you're already aware, Joseon Dynasty was an agrarian society. So the family structure hardly changed. We often refer to medieval or feudal societies as land-bound, which has a tendency to view humans as passive beings. However, actually, they were able to build a stable and fulfilling life based on their land. People usually grew up where they were born, got married, had children, and started families.

Nowadays, the biggest problem in the Korean society is housing, which is one of the reasons young people don't want to get married. It's hard to get a house these days, so if you look at it that way, the Joseon social order based on land is probably better. So the family, or the household, was a very important space in the Joseon society. It had a lot more members than today's households, so the relationships within the household were not just private. They were both private and public, and the repercussions of those relationships were not light. Sometimes events within the household would escalate into social and even national issues. That's why there's a saying,



‘First, teach yourself, then manage your family, and control your country before you can rule the world.’

There is a type of Korean classic novel called ‘the family novel’. Works in this genre literally revolve around events that take place within a family. Joseon Dynasty is often referred to as a patriarchal society, with the patriarch at the pinnacle of power. As a result, it's very important for members of a family to know how they are viewed by the patriarch, as it can change their status within the family. This is reflected in Korean classical novels, which often feature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The protagonists of these conflicts are usually women, wh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atriarch; they are either the patriarch's wives or the patriarch's concubines. This is because they have to earn and maintain the patriarch's trust. In the end, these conflicts usually end with the good person being rewarded and the bad person being punished. It's a happy ending. But what's important is not the happy ending itself. It's how the conflict plays out to get there. It's kind of like how a Korean soap opera might have a somewhat predictable conclusion, but that's why people tune in every time. Even though the conclusion is somewhat predictable, it's the process that keeps people coming back for more.

Among the many works that showca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novel, I chose ‘Sa-ssi Namjung-ki’. It is commonly believed that the family novel appeared in the 17th century, and ‘Sa-ssi Namjung-ki’ appeared in the 17th century. In this work, the patriarch, Yu Yeon-soo, appears, and the conflict between his wife, Ms. Sa, and concubine, Ms. Kyo, develops. I say “conflict,” but it'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s Ms. Kyo who's the one causing the conflict. Ms. Kyo does everything she can to drive Ms. Sa out of the house and even plans to get rid of her. What largely influenced Ms. Kyo to do such cruel things is the structural nature of the family.

What is the most important task in a family? It is to produce a son who will succeed the patriarch. So producing a son becomes the goal of a woman gets married into a family. But if you don't achieve that goal, there will be problems. If the wife cannot produce a son, he will try to get another wife to

have a son. This naturally leads to a family consisting of a patriarch with multiple wives, including concubines. And whoever gives birth to a son is recognized within the family.

The same is true for ‘Sa-ssi Namjung-ki’. Ms. Sa is the wife, but she is unable to produce a child, so Ms. Kyo joins the family. Ms. Kyo eventually gives birth to a son and is recognized, but then Ms. Sa gives birth to a son as well, and the conflict intensifies. In short, the family was the stage of people's lives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 space where social relationships were formed. As such, there were many conflicts, both large and small, that were expressed in various events in classic novels. Let's take a look at how the everyday time and space of the family is depicted in Korean classic novels through ‘Sa-ssi Namjung-ki’.

Another example of a real-world setting, such as everyday time and space is the use of historical time and space. Among the time and space that actually existed in history, those that were strongly imprinted on people's experiences and memories, that is, those in which very traumatic events occurred, were used as settings in classic novels.

Perhaps the most traumatic events in Joseon society were the invasions from other countries, most notably by neighboring Japan and the Qing Dynasty,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known as the Imjin War and the ByeongJa War. The Imjin War refers to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and ByeongJa War to the Qing Dynasty's invasion. Neither invasion was a one-time event. After the Imjin War, Japan invaded again known as the JeongYoo War, and the ByeongJa War was preceded by the Qing's invasion known as the JeongMyo War. From the first invasion, the Imjin War, to the last invasion, the Byeongja Horan, these four invasions were concentrated in less than 40 years. I've only mentioned the wars in which Joseon was invaded, but the Joseon army also fought in several foreign wars. So I'm not exaggerating when I say that the scars were imprinted in the DNA of the people of Joseon.

Joseon was deeply wounded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16th to the 17th century, and society changed a lot, too. So many novels set in this period of

constant wars were created. And it didn't stop after the wars. They were created and widely enjoyed throughout the later Joseon period. In this course, we're going to look at two of them.

The first is 'Choi Cheok Jeon', which is set during the Imjin War and the Jeonyu War, the Japanese invasions of Joseon. The main characters are family members. A family is torn apart by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and they end up not even knowing if they're alive or dead. But something miraculous happens. Most of the family members, who had no idea about each other's whereabouts or if they're alive, are reunited. The location of the reunion is also unique. Eventually, they all end up in Joseon, but before that, different parts of East Asia including Vietnam, China, and various parts of Joseon are where the family dramatically reunite. Multiple miracles had occurred. The dramatic reunion of the family is almost too good to be true, to the point where you think the piece is overly contrived. But if you can picture the state of war in your mind, you realize that this story could really be true. And you naturally get teary-eyed, because you can sympathize with their tearful efforts to reunite.

But there's something else we should note here: The reason we are moved is not only because of the family efforts. If we trace the specifics of how these families were brought back together, there was always help from others. And who were those others? Every single one of them was a foreigner.

that emotion isn't just felt between family members. It'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East Asia was in the middle of war. Would it be possible to care for and save the life of a foreigner in the midst of war? It is, at least in this piece. People recognized that person as a human being before they saw their nationality, and they literally treated a foreigner as a human being. When you think of a work set in the times of war, you might only think of fierce battles with opposing countries, but in this work, there are beautiful scenes of people helping each other.

So why did the people of Joseon, whose scars of war are so strongly imprinted on their minds, create and enjoy novels about multinational people

caring for each other? We'll find out the reason later in detail.

Another piece I'd like to introduce here is 'Bak-ssi Jeon'. It is set during the Qing invasion, the ByeongJa War. The main character, Ms. Bak, is a woman. She's the one who takes on the Qing general, Ingguldai, and his Qing troops. It would be impossible for a woman to take on the Qing army on her own, right? In this work, the history of the Qing invasion of Joseon during the Byeongja War is combined with the fictionalized story of Ms. Bak defeating the Qing forces.

Do you know about the ByeongJa War by any chance? Actually, we can't call it a war since it was a one-sided victory for the Qing. Joseon's force was weak, but more importantly, Joseon was completely unprepared to deal with the Qing, who were capable of new forms of warfare. Joseon quickly lost the initiative, and the king fled to Mt. Namhan castle. There, isolated, Injo eventually surrendered. The ByeongJa War, which has recently been depicted in movies such as 'The Fortress',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humiliating moments in Joseon's history.

However, in 'Bak-ssi Jeon', Ms. Bak punishes the Qing dynasty, even if it's temporary. Ms. Bak may be a fictional character, but could there have been another general who even temporarily punished the Qing like Ms. Bak did? While there may have been some resistance from the volunteer soldiers, none of them would have been able to overpower the Qing like Ms. Bak. So the character of Park is fictional, and the fact that she temporarily overpowered the Qing is also completely fictional.

So why was this novel set in the ByeongJa War? And why did it feature a woman, Ms. Bak, as a protagonist avenging the Qing, even when Joseon was defeated in the war. We'll find out more later in our course.

---

## 3차시 새롭고 낯선 공간

---

As we've seen, both everyday and historical time and space have been depicted in a variety of ways as settings for classic novels, all of which speak to the tastes of those who created and enjoyed them at the time. Interest in the physical, real world wasn't just about us or what we experienced. Spaces of curiosity also became settings for classic novels, which is new and unfamiliar space.

In this course, Yuldoguk from 'Hong Gil-Dong Jeon' and Jeju Island from 'Bae bijang Jeon' are tied together under the theme of new and unfamiliar spaces. In fact, these two spaces seem very disparate. Yuldoguk is often seen as an ideal society, while Jeju Island is the place where the main character, Bae bijang, is humiliated. So you might ask, how can these two very different places be tied together?

Well, there's an easy answer that comes to mind: they're both islands. They're isolated spaces, cut off from the outside world. These two places are similar in that they are new spaces that the protagonists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and therefore know nothing about.

The fact that these two places are new and unfamiliar to the protagonists is not the only thing they have in common. If you're familiar with the plot of 'Hong Gil-Dong Jeon', you might think that Hong Gil-dong settles into Yuldoguk very smoothly. But that's not the case at all. Hong Gil-dong and his followers have a lot of conflicts with the local natives in the process of conquering Yuldoguk. On the other hand, Bae bijang in 'Bae bijang Jeon' is often understood to have been humiliated at every turn on Jeju Island. If you only read the plot, that's how you'll see it too. However, later on, Bae bijang befriends the people of Jeju Island and rises to a high government position. So both places are new and unfamiliar spaces for the protagonists, and both are places where conflicts with the local natives take place. And whether through force or harmony, both characters eventually achieve high positions

there. So we can say that the new and unfamiliar space in both works is a place where the protagonist, who has a privileged status or authority experiences conflict with the indigenous people and becomes the main agent or part of the people.

First, let's talk about 'Hong Gil-Dong Jeon', which is so familiar to Koreans that it's safe to say that there's no Korean who doesn't know it. Now we can extend that to foreigners who are interested in Korea. It is a work that they inevitably encounter when studying Korea, so even foreigners who are interested in Korea are not unaware of this work. Some foreign students even narrated the plot to me and spoke about the main character with ease. However, there is something we must point out. It's that people, both Koreans and foreigners, remember this work not through actually reading this work, but instead based on information that has been given significance by others.

How did you come to know the story of 'Hong Gil-Dong Jeon'? Did you hear someone explain it to you? Or did you read it as a fairy tale book? I don't want to blame anyone for learning about the story in such a way, but when your material is an adaptation of the original, it often fails to capture the essence of the original work. This is especially true in the case of 'Hong Gil-Dong Jeon', because rather than contemplating about the protagonist and the theme for yourselves, we're more used to following the fixed conclusions.

We memorize it like a formula that Hong Gil-Dong is virtuous and the conquest of Yuldoguk is the construction of an ideal society. Koreans simply memorize this as they prepare for entrance exams, and the situation is not much different for foreign students. After all, that's how most media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Hong Gil-Dong Jeon'.

Well, if that's what 'Hong Gil-Dong Jeon' is really about, it should be seen as a story of a virtuous protagonist performing acts of righteousness for the poor and hungry people, and eventually creating a new world in a new place with these good intentions. Let's see how the story actually unfolds. While it's true that Hong Gil-Dong initially does good for others, we can't say it's consistent. Later on, as he becomes more widely known and his influence

grows, his actions are less about righteousness and more about negotiating with the state and the king.

Hong Gil-Dong's behavior at this stage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reader. However, we have to admit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Yuldoguk conquest. If it were about building an ideal society, then there should be some evidence of literally building an ideal society here, but the conquest of Yuldoguk is very violent and brutal from the start. Hong Gil-Dong's band crush the local powers by force. A Yuldoguk general is killed without knowing why Hong Gil-Dong's band invaded. The same goes for the people of Yuldoguk. The people were enjoying a peaceful and prosperous life, until one day, an occupation force suddenly invades. It is clear at this point that Hong Gil-Dong's conquest of Yuldoguk cannot be seen as the creation of an ideal society.

In this course, I'm going to use Yuldoguk as an example of violence wrapped in the name of building an ideal society. It's because if the ultimate goal of 'Hong Gil-Dong Jeon' is to build a new society, at least it's not an ideal society. You'll see that the world created by Hong Gil-Dong, or the setting, is closely related to the theme of this work.

Next up is 'Bae bijang Jeon'. In this course, we'll explore 'Bae bijang Jeon' along with 'Hong Gil-Dong Jeon' to examine the theme of a new and unfamiliar space. How many of you are familiar with 'Bae bijang Jeon'? If you're Korean, you've probably heard this story at least a couple of times, because it's almost considered a traditional fairy tale.

If you're a foreigner, you've probably heard of it as well, but just like the 'Hong Gil-Dong Jeon', rather than reading the original or its translation, it's most likely that you read a rewritten version. So most people learn about the story from a secondary version. So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a secondary version of 'Bae bijang Jeon'? The biggest difference is that it focuses on the troubles Bae bijang goes through.

Bae bijang, originally from Seoul, is assigned to Jeju Island and travels across the sea. Since there are many beautiful women on Jeju Island and



he's away from his family, it's easy to fall into their temptations. Bae bijang swears he'll never succumb, but not long after he arrives, he falls for a Gisaeng named Ae-rang. Along the way, he makes a fool of himself and becomes an object of ridicule. In fact, if you actually read the work for yourself, you'll see that a good portion of it is filled with scenes where Bae bijang is humiliated.

But there's something to keep in mind when you're reading classics, whether they're Korean or from other countries. It's the fact that classics are unkind texts in some ways, and they're also open to interpretation in many ways. Let's take 'Bae bijang Jeon' as an example. The funny scenes in this work are, of course, related to Bae bijang getting humiliated,

but that's not all there is to it. We can also encounter Bae bijang's prejudice against Jeju Island and its people. Bae bijang has a strong tendency to disparage the people and culture of the region. When Bae bijang proclaims his intention to stay away from women, on the surface it's about staying away from women, but underneath it's about his disdain for Jeju culture. Before we can judge whether it's good or bad to hang out with Gisaengs, we need to understand what he intended when he pledged to stay away from Gisaengs.

But if we only focus on the story of Bae bijang experiencing humiliation, things like Bae bijang's attitude towards Jeju Island is drowned out and no longer visible. It's difficult to see such things in a narrative that's been derived from the original. This is one reason classics can be interpreted in a lot of different ways.

And one more thing. Bae bijang was assigned and went to Jeju Island, right? So after he was humiliated, did he leave Jeju Island, or did he stay? For those of you who studied 'Bae bijang Jeon' focusing on its plot, your memory of this ending may be fuzzy, because it's not emphasized as much. Bae bijang couldn't leave Jeju Island. And while on Jeju Island, one day, Bae bijang is appointed as the governor of Jeong-Ui. 'Jeong-Ui' is a village on Jeju Island, and he becomes the governor of the region. How did he become a governor when he had been in so much trouble in Jeju Island? This is a process of a central bureaucrat coexisting with the local people and being

integrated into their culture. In other words, Jeju, which is the stage on which this story is set is deeply connected to the theme of this work.

So far, we've covered the types of classic novels that are set in the real, physically existing world, that we'll be covering in this course. What do you think? Did you find that there's a lot more diversity in the settings of classic novels than you thought? I've introduced only about half of them, so stay tuned for more.

---

## 4차시 꿈속 시공간과 환상적 시공간

---

So far, we've talked about the physical time and space of the real world as a setting for classical fictions. I also introduced works that are set in this time and space. But these physical settings are not the only settings in classical novels. There are also spaces that we encounter in our dreams, the product of our imagination. These spaces, of course, don't exist in reality, but they're based on real-world problems. So the setting is surreal, yet contains very real problems of reality. First, let's talk about time and space in dreams.

We all dream. Dreams are a manifestation of the unconscious, but inevitably they are projections of something I've felt in reality, such as a deficiency or a desire. So my reality and my dreams are deeply connected. If you're using such a dream as a device in a novel, then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otagonist's reality and the dream is very strong, because stories tend to move in one direction, and if the protagonist is having a dream, it must be related to some aspect of the protagonist's life.

The dreams that seem to have no particular meaning are called silly dreams, but you won't find many of these in novels. You'll usually find meaningful dreams in novels. Like this, dreams have a significant role in novels. That's why they appear in novels. However,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ypes and functions of dreams in classical novels, so we can't cover all of them in this course. Here, we're going to look at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dream in *Mongyu-rok*.

*Mongyu-rok* is a very unique type of novel that can only be found in Korean classic novels. It has a narrative structure known as 'fantasy dream structure', in which the protagonist dreams while in the real world, and enters the dream world, wakes up from it, and returns to the real world. Whether the protagonist's identity is maintained or transformed is also a very important issue. In *Mongyu-rok*, the protagonist's identity is the same whether in reality or in a dream, so the protagonist enters the dream world with his or her

identity intact, and when he or she wakes up, the identity is still intact. It's not case that the identity changes as the protagonist dreams or wakes up from it to add to the story's interest.

But this type of Mongyu-rok does serve a clear purpose: the protagonist brings his awareness of the problems in reality into the dream. In other words, the discontent, deficiencies, or desires that the protagonist has in the real world are fully explored in the dream. In fact, when you read Mongyu-rok genre pieces, you always see a group of people in the dreams, and they're usually people who can understand the protagonist's situation. So the protagonist goes into the dream and unravels something that he or she had a hard time unraveling in the real world. In this sense, the dream world in Mongyu-rok is a place of healing.

In 'Suseong Palace Mongyu-rok', a work we'll be covering in this course, the protagonists' wishes, which couldn't be realized in the real world, are realized in the dream world. The protagonists of the story, Kim Jinsa and Woonyoung were in love in the real world, but are in a situation where they're unable to express their love. They had no choice but to express their feelings in the most extreme way. They could never fulfill their wishes in real life, but in their dreams, they're able to happily meet each other. In their dreams, their wishes are realized, which is why the dream stage is so long in the piece. The time and space setting becomes where the thematic consciousness of the work is realized.

Next, let's talk about illusory time and space. I mentioned earlier that dreams are both illusory and reality based, but there are also literally fantastic time and space.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ypes of fantastic time and space that we're going to look at them twice in this course, one in which the boundary between this life and afterlife has disappeared, and the other in which the boundary between the earthly world and the underwater world has disappeared. Fantastic time and space,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this life and afterlife have disappeared, often appear in situations where the main character has died. In this course, we'll look at 'Lee Saeng Gyujiang Jeon' as an example.

It is one of the five works included in Kim Si-seup's 'Keumo Myths'. which is a representative collection of Korean classic novels, It'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and so is the title. It can be literally translated as 'the story of Lee Saeng peeping through the fence'. So, why does Lee Saeng peep through the fence and how does the story unfold? To summarize, this work is about a couple, Lee Saeng and Choi Nang. Choi Nang dies during a war but they transcend the boundary of this life and afterlife to meet again and fall deeply in love for some period.

This life and afterlife. Human beings, very ordinary beings, only know that this life and afterlife are two different paths. They don't know how the two paths are different or what the afterlife space is like. Still, Lee Saeng and Choi Nang transcend the boundary and reunite. Since the stage they meet is the same space as when Choi Nang was alive, on the surface it looks like the same human world, but since Choi Nang is no longer alive in the real world, from that moment on, the stage they meet becomes a fantasy time and space, not a human world.

Then, why did they have to break the universal law stating that this life and afterlife must respectively exist in their own realm, and transcend the boundary to reunite? As you can easily guess, it was because their love was so desperate. In other words, the feelings between the two were strong enough to violate the universal order of the world. So, the fantastic time and space in this work does not stop at simply creating the atmosphere of the work, but functions as a space that concretely realizes the desire for their love, which is the theme of the work. That is, the setting of time and space is closely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theme.

It is commonly said that there are many dualistic worldviews of heaven and earth appearing in Korean classic novels. But in fact, these dualistic worldviews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They also influence each other. However, this life and afterlife are not related in 'Lee Saeng Gyujiang Jeon'. Rather, the couple, trying to overcome the obstacle in spite of being unable to switch between this life and the afterlife is what bestows the work its unique status.

Next up is fantastic time and space in ‘Sim Chong Jeon’. This is also a very well-known Korean novel. Not long ago, on global social media, an American college student introduced a song ‘DIVE’ based on ‘Sim Chong Jeon’ and received much attention. So now, it’s well-known to even foreigners who are interested in Korea. Those who know ‘Sim Chong Jeon’ may wonder why this work is introduced as a work set in a fantastic time and space.

Of course, when considering the theme or ideology of this work, a child’s filial piety comes to mind. So you might think that this work is simply a reflection of the reality of the late Joseon Dynasty. I think that’s one way to look at it, too. But instead of just thinking about where this piece is set, we need to think a bit further and contemplate about in which setting the theme is realized. If we look at it that way, the village where Sim Bongsu and Sim Chong lived is not the setting where the theme is meant to be realized.

The space where the theme, i.e., Sim Chong’s wish, is realized, would be the place of Sim Bongsu’s eye opening moment as Sim Chong becomes the Emperor’s wife after returning from the sea. This is a place in the reality of the human world where the blind feast takes place, but given what Sim Chong had to go through to get to this point, it’s hard to say that this is simply a place in reality. In fact, Sim Bongsu opens his eyes here, which couldn’t have happened in the real world. Then, we can view the underwater dragon palace that Sim Chong visited as the core time and space in the story, and the space she experienced as an empress should be seen as an extension of that. Then, the space she experienced as an empress can also be seen as part of the fantastic time and space.

In this lesson, I’ve introduced two types of fictional time and space: time and space in a dream, and fantastic time and space. Later in the course, we’ll study ‘Suseong Palace Mongyu-rok’, where time and space in a dream is represented. Actually, this is not the most famous work of Mongyu-rok, but I chose it to show the different aspects of Korean classical novels. We’ll also discuss ‘Lee Saeng Gyujang Jeon’ and ‘Sim Chong Jeon’ where fantastic time and space is represented. Stay tuned to see how works set in dreams or fantasies utilize such setups.

---

## 5차시 깨달음의 시공간

---

The final time and space we'll explore in this lesson is the 'time and space of enlightenment'. This time and space is quite unique. It features two different kinds of worlds, but they are not in a position where one is subordinate to the other. As we saw earlier, for example, if the dream world appears as a stage set for solving a problem in the real world, then we can say that the dream world is subordinate to the real world. It's also different from a state in which the boundaries between two worlds become irrelevant such as in a fantastic space-time,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the worlds of this life and afterlife, or land and sea, are torn down. In this case, a single human being is crossing two very different worlds with the same identity.

The time and space of enlightenment that I am introducing is not about a single person maintaining the same identity and crossing the two worlds. Then, what is it? First, the premise is that a single human being who sometimes looks like a different person with a different identity is living in the two worlds. It's a bit complicated, isn't it? But the different beings that seem identical, and different identities that seem identical are interrelated. I'm sure you're confused, right? It's a lot, isn't it? Let's me introduce an example.

The time and space of enlightenment is represented in 'Goo Oon Mong' written by Kim Man-jung. It features a character named Sung-jin from the Buddhist world. Sung-jin is a devoted monk, but one day, his suffering begins. He starts feeling human lust after running into the Eight Fairies. So his teacher, Yuk-Kwan Daesa, sends him to the human world. The Eight Fairies are also thrown into the human world. Now that Sung-jin and the Eight Fairies are in the human world, it might seem that their identities are maintained.

But that's not the case. Let's take Sung-jin as an example. After being thrown into the human world, Sung-jin is reborn as Yang So-yu. What's interesting is that from the moment he's born as Yang So-yu, he forgets who

he used to be. All of his memories immediately fade away. So, we can't separate Yang So-yu from Sung-jin, but he doesn't retain all of Sung-jin's identity. That's why I said the different beings that seem identical, and the different identities that seem identical,

Some might say that since Sung-jin and Yang So-yu are different beings in the two different worlds with different identities, the two can be separated. But it's not that simple. The two are both conscious of each other at some point. At one point, Yang So-yu vaguely recalls his life as Sung-jin. Then, Yang So-yu eventually returns as Sung-jin. That's why we can't simply say that they're different.

In this work, there are 2 sets of time and space: the Buddhist world and the human world. Neither of these worlds is subordinate to the other, nor are they two separate worlds. So the 2 sets time and space are So are the characters appearing in them. Sung-jin and Yang So-yu are one but separate, and separate but one. The Buddhist world and the human world are intermingled.

In this course, we've talked about categorizing novels based on the setting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theme of the pieces. Then how do the two complex sets of time and space relate to the theme of the piece? Many people recognize the theme of 'Goo Oon Mong' as futility of our lives, but actually, that's not the case. The realization of true reason beyond the binary distinction between true and false, I'll say that this is the theme of this novel.

After Sung-jin returns from Yang So-yu, he realizes that human desires are transient. Yuk-Kwan Daesa then tells Sung-jin that denying the human world and affirming the Buddhist world is dichotomous thinking, perceiving one as true and the other as false. Yuk-Kwan then asks Sung-jin if he can distinguish which is true and which is false, between the human world and the Buddhist world. He uses Zhuang Zhou's 'a butterfly's dream' as an analogy. Sung-jin admits that he hasn't yet reached the true enlightenment and resumes his monastic studies. In the end, the implication of having two sets of time and space is not so much about what they are, but rather the fact that they can coexist while each maintaining its own meaning.



We are ordinary human beings, and we want quick answers to what's right and what's wrong. And that's related to our transient desires. This work questions that attitude itself: why do we have to distinguish between what's right and what's wrong? After all, if that's what this piece is about, whether the time and space exist in reality or only in imagination, the time and space cannot be the stage stretched out in front of you. So what does the time and space mean here?

It's your inner world of perception. we struggle and wander between the myriad worlds that exist within us. This is where we need to be unbiased because as soon as we decide what we like more, what we think is more right, we get distracted. It's only by remaining unbiased that we can reach true enlightenment. This is how 'Goo Oon Mong' introduces the inner world of perception and leads to enlightenment. The two worlds are colorfully displayed in the piece, but the point of the piece is not that they actually exist. It's telling us that multiple worlds can coexist within us.

The perception of one as right and the other as wrong leads us to a fundamental skepticism. For example, if we say that joy is right and sadness is wrong, when we are in joy, this perception makes us happy, but when sadness strikes, we can't help but fall into deep despair. The same goes for life and death. If we say that life is right and death is wrong, in the moments of life, it's all joy, but when death strikes, we can't help but fall into deep skepticism. The reason we have to be ambivalent is because we are insignificant human beings: we will eventually experience both joy and sadness, life and death.

As you can see, 'Goo Oon Mong' is a challenging, yet profound read. It's not often that we have the opportunity to contemplate such fundamental issues in life while reading a novel. In this sense, the two sets of time and space presented in this piece are important clues to understanding its thematic direction. So far, we looked at the six types of time and space represented in classic novels that we'll be covering in this course. Starting from our next class, we'll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time and space. I hope you enjoy each one of these works and may even find them

interesting. Thank you.

# 讲义

## 1차시 한국 고전소설, 이야기 속 세상을 만나다

大家好，我是高丽大学国语国文系韩国古典文学中研究和教授韩国古典小说的严泰雄教授。很高兴见到大家。感谢听这门课的各位。即便对韩国人而言，古典文学也不是什么值得高兴的主题。尽管如此，既然如此欣然地决定听课，我会用高质量的讲座来报答大家。

在此讲座中，将以韩国古典小说展开的世界，即韩国古典小说中的背景为中心，与大家一起阅读9部作品，学习作品的特征。

既然是小说，有可以称得上是小说重要要素的人物，也有事件，为什么偏要以古典小说为背景来考察呢？首先要找到这个问题的答案。在通常所说的小说中，背景的作用或功能是什么呢？

我们不要想得太难，以轻松的素材为中心联想一下。如果作品中的背景暗淡，作品的气氛会沉重吧。相反，如果作品中的背景明亮，作品的氛围就会更加轻松。在电视剧或电影等视觉产物中，这种特征更加明显。如果是与心爱的女子约会的场面，一般都会使用明亮华丽的照明。相反，在犯罪者犯罪的场面中，由于黑暗，会使用不容易显露轮廓的照明。像这样，背景营造了作品的整体氛围。背景营造得符合整体氛围，意味着背景与作品中事件的展开并无二致。举个例子，有一名第二天要面临战争的军人。对他来说，这一晚无疑是非常珍贵的。参战可能会受伤，甚至会丧命。说不定身边一个心爱的同事就会去世。当晚的气氛在小说中将被描写成安静而又紧张的状况。通过这样描写背景，设定了背景可以与今后发生的事件彼此照应。此时背景对今后展开的事件具有赋予其盖然性的作用。

背景的作用只有这些吗？再来看一下面临战争的军人。刚刚讲过军人当晚会怎样。是的，必然是非常珍贵的。珍惜这个夜晚的军人的心理是怎样的呢？不安感应该是最大的。应该非常希望明天早上不要到来。如果战争的胜利比个人的生命和安危更重要，那么他可能会抱有相反的心情。虽然感到不安，但希望明天来到，一定要在战争中取得胜利。这种时候，背景也会被利用在强调人物的心理上。

背景与作品中主要要素的关系是如此紧密。与事件和人物都建立了关系。事实上，只有人物、事件和背景相互协调才能说是好作品。但人物、事件和背景如此重要的原因是什么呢？是

的，当然是为了通过作品明确表达想要说的话。通过作品想要说的话，另一种说法是什么？是的，正是作品的主题。归根结底，背景也是在突出作品主题的过程中做出贡献的对象。从这一点来看，背景不是与人物或事件相比重要性较差的要素，而是与人物、事件一样，其重要性需要得到认可的小说要素。像这样探索背景意味着理解作品。那么，古典小说中主要设定的背景是什么呢？

先从简单的开始想一下。首先日常空间可以成为背景吧。毕竟小说承载了我们的生活。古典小说中也有很多以日常时空为背景的作品。第二，从所谓‘实际经历的时空’的层面来看，接下来可以想到的是历史时空。在韩国古典小说中，历史时空和历史事件是常客菜单。特别是像战争一样，刻印在人们记忆深处的事件经常出现。第三，虽然不是实际经历的时空，但因为是我们周围存在的空间，所以如果有机会的话，可以体验一下，所以也会出现充满好奇心的时空。可以说这是新鲜又陌生的空间。

到目前为止提到的三种背景，无论是否经历过，都存在于我们生活的现实世界中。这算是物理性存在的背景。但古典小说中并不只有这种物理性存在的背景。首先，可以思考一下人类经常经历的行为，即通过梦境展开新背景的情况。所谓的梦中的时空就属于这个范围。古典小说中出现了多种类型的梦中时空。第二，幻想性时空。所谓梦境是以现实为前提的，但这里所说的幻想时空并没有明确揭示那里是不同于现实的、所谓幻想舞台的那种界限。由于这种现实和幻想的模糊的界限性，作品展开得更加有趣。但也有这种模糊达到极致的作品。就是《九云梦》。

在这部作品中，很难判断两个世界哪个是现实哪个是幻想。这种幻想时空相当于第三种。大家觉得到目前为止听过的古典小说中的世界怎么样？不觉得会很有趣吗？我的愿望好像说得太直率了。不管怎样，因为是以前的故事，所以熟悉最近故事的人可能会不太感兴趣。但无论是过去还是现在，人们生活的过程中创作故事，创作的故事经过多个地区和世代，生存的可能性随时得到评价。所以流传至今的故事，对我们而言也是相通的。从本质来看，无论是以前的故事还是最近的故事都有相通的一面。

今天这个时间将介绍古典小说中出现的多种背景，并告诉大家其中最具代表性的作品是什么。这些作品大部分将通过该讲座更具体地进行介绍。那我们一起来考察一下。

## 2차시 일상적 시공간과 역사적 시공간

한국古典小说出现的多种背景中, 首先来看一下以现实世界中存在的物理时空作为背景的类型. 从最贴近我们生活的日常时空开始讲一下.

日常时空. 那么, 在朝鲜时代, 日常时空是什么样的地方呢? 事实上, 限制其范围是不合理的. 朝鲜时代的时间范围非常广, 地域范围也绝不狭窄. 在这广阔的时空中生活着无数的人, 他们经历的每一天都是日常. 所以不可能限定范围. 但我们经常说日常的时候, 会想起在特定时代或社会中典型的景象. 那么一提到朝鲜时代, 会想到什么呢? 如果将其与古典小说的时空联系起来思考, 首先想到的空间背景是‘家族’.

众所周知, 朝鲜时代是农耕社会. 所以家庭成员的变动或家庭移动并不频繁. 人们常说中世纪或封建社会是束缚在土地上的时代. 这给人一种强烈的将人类定义为被动存在的感觉. 相反, 当时人们可以以给定的土地为基础, 经营稳定和充实生活. 人们通常在出生的地方长大, 在那里结婚, 生下子女, 组成家庭. 最近韩国社会最大的问题是居住. 年轻人回避结婚的原因之一就是居住问题. 也就是说, 很难找到房子, 如果这样看的话, 以土地为基础的朝鲜社会秩序看起来会更好.

总之, 家庭或家族在朝鲜社会是非常重要的空间. 与现在的家庭相比, 家庭成员更多, 因此家族内部形成的关系并不只是私人关系. 私人关系和公共关系都存在. 这些关系所产生的影响也十分重要. 家族内发生的事件甚至会扩大到社会乃至国家层面的问题. 所谓修身齐家治国平天, 这种结构性认知不是白来的.

韩国的古典小说中有被称为‘家族小说’的类型. 属于这种类型的作品, 顾名思义就是以家族内发生的事件为中心展开的故事. 朝鲜时代通常被称为家长制社会. 家长位于家长制权利的顶点. 因此, 家族成员从家长那里得到怎样的评价非常重要. 因为根据评价的不同, 自己的地位也会有所不同. 这些家族的特性如实地反映在古典小说中. 因此, 家族小说中经常出现家族成员之间的矛盾. 矛盾的主人公通常是女性. 在女性中, 与家长有着紧密的关系, 即家长的正妻或妾室的情况必然很多. 因为这些人必须不断得到家长的信任或一直维持得到的信任. 最终, 这种矛盾大体上以善良的人得到福报, 恶人受到惩罚的‘惩恶劝善’的结局结束. 算是大团圆结局.

但看家族小说时, 重要的不是以惩恶扬善结束的事实. 而是应该观察到结局为止, 矛盾以怎样的方式发展的. 就像韩国的狗血剧, 结论多少有些明显, 即便如此人们每集都看, 与

其理由相似. 虽然结论已经确定了, 但人们收看电视剧的理由很有可能是在这个过程中.

在展现家族小说特征的众多作品中, 我选择了《谢氏南征记》这部作品. 通常认为家族小说是从17世纪开始出现的. 《谢氏南征记》就是17世纪出现的作品. 在这部作品中, 家长刘延寿登场, 以围绕刘延寿这个人物, 正妻谢氏和妾室乔氏发生矛盾而展开. 虽然我说会引发矛盾, 但说诱发矛盾的人只有乔氏也不为过. 乔氏想尽办法把谢氏赶出家门, 甚至还计划除掉谢氏. 乔氏之所以产生如此残忍的想法, 家族这个空间具有的结构特性产生了很大的影响.

家族最重要的课题是什么呢? 是继承家族的存在, 即生下继承家长的儿子. 因此, 对于嫁入家族的女性而言, 生儿子是一个目标. 但如果目标不能实现, 就会出现問題. 如果正妻不能生儿子, 哪怕再娶个夫人, 也一定要生个儿子. 这样一来, 自然而然地由一名家长和包括正妻和妾室在内的多名夫人共同组成了家族. 而且其中生下儿子的夫人, 在家族内会得到认可. 《谢氏南征记》也是如此.

虽然谢氏是正妻, 但因为不能生孩子, 所以乔氏进入了这个家族. 乔氏最终生下了一个儿子, 得到了认可. 但此后, 随着谢氏也生下了儿子, 矛盾进一步加深. 总之, 家族是朝鲜时代人们生活的舞台, 也是形成社会关系的空间. 所以在此大大小小的矛盾很多. 这种矛盾在古典小说以各种事件表露出来.

让我们通过《谢氏南征记》了解一下被称为家族的日常时空在韩国古典小说中是如何被描绘的. 像日常时空一样, 以现实世界中存在的时空为背景的情况, 也可以找到利用历史时空的情况. 在历史上实际存在的时空中, 强烈地刻印在人们的经验和记忆中的时空, 即发生非常令人震惊的事件的时空被用作古典小说的背景. 如果说朝鲜社会中最令人震惊的事件, 那么其他国家的入侵, 特别是16~17世纪周边国家日本和清朝依次入侵朝鲜的‘壬辰倭乱’和‘丙子胡乱’就是代表性例子.

壬辰倭乱是日本入侵朝鲜, 丙子胡乱是清朝入侵朝鲜. 两国都没有一次性结束对朝鲜的进攻. 日本在壬辰倭乱后发起了丁酉再乱, 清朝在丙子胡乱之前曾发生过丁卯胡乱. 从最早的入侵-壬辰倭乱到最后的入侵-丙子胡乱, 这4次侵略在不到40年的短短的时间内集中发生了. 只说了他们入侵朝鲜的战争.

除此之外, 朝鲜军还多次参加了外国的战争. 所以即便说朝鲜人的DNA中刻印着这一伤口也不为过. 朝鲜在从16世纪过渡到17世纪的时期, 受到了巨大伤害, 社会也发生了很大的变化. 所以以当时的战争为背景创作了很多作品. 不只是在战争之后创作. 在朝鲜后期, 这些作品一直被广泛享有.

本课时我选了其中的两部作品. 首先介绍的作品是《崔陟传》. 该作品以壬辰倭乱和丁酉



再乱，即日本侵略朝鲜的历史事件为背景。然后将家族设定为主要登场人物。这些家族因被入侵朝鲜的日军而四散飘零，最终彼此生死不知。但在这部作品中发生了不可思议的事情。像这样不知道去了哪里，甚至不知道是否还活着的家人们，大部分都再次重逢了。重逢的场所也很独特。虽然最终都聚集到了朝鲜，但在此之前，在越南、中国、朝鲜的其他地区等东亚多个场所，家人戏剧性地生还了。这简直就是奇迹，而且发生了很多次。家人戏剧性的相逢令人难以置信，甚至让人觉得这部作品过于虚假。但是，如果将当时战争的情况刻画在脑海中，回想当时的情况的话，我认为这个故事可能真的是事实。并且自然地眼眶泛红。因为能感受到他们为了再次见到家人而付出的努力。

但在这里我们还有一个需要关注的地方。这种感动并不是只有家人之间才能感受到的。追踪这些家人是如何再次见面的具体过程，会发现其中总是有‘周围人的帮助’。但是周围的人是谁呢？都是国籍不同的外国人。当时说是东亚战争爆发的状态也不为过。在这种情况下，拯救其他国家人的生命，照顾其他国家人的生活，这真的有可能吗？至少在这部作品中是可能的。人们在看他的国籍之前，先认知到他是人。顾名思义，很有人情味地对待他。因为是以战争为背景，所以可能只会想到出现与对方国家激烈战斗的场面的作品。这样互相帮助的美丽场景出现在了这部作品中。那么，牢牢刻印下战争创伤的朝鲜人为什么创作并享有多国人民彼此融合的小说呢？之后，我们将具体欣赏作品的同时寻找其理由。

这里要介绍的另一部作品是《朴氏传》。该作品以清朝入侵的丙子胡乱为背景。这部作品的主人公朴氏是女性。而朴氏是狠狠地教训了曾引领丙子胡乱的清朝将帅龙骨大等一伙人的人物。女性独自面对清军，在现实中是不可能成立的情况。在这部作品中，同时出现了清朝侵略朝鲜的丙子胡乱这一历史事实和朴氏这个虚构人物十分活跃，教训清朝势力的想象的故事。

大家知道丙子胡乱这一战争吗？事实上，这场战争，甚至不能说是战争的程度，是清朝单方面的获胜。虽然朝鲜国防力量薄弱，但最重要的是朝鲜完全没有做好应对具备新型战争能力的清朝的准备。所以朝鲜瞬间失去了主导权，朝鲜的国王逃往南汉山城避难。在那里被孤立的仁祖最终宣布投降。最近通过《南汉山城》等电影介绍过的丙子胡乱被评价为朝鲜历史上最耻辱的瞬间。

但在《朴氏传》中，朴氏只是暂时教训了一下清朝势力。朴氏虽然是虚构人物，但有没有其他将领像朴氏一样暂时教训过清朝的情况呢？虽然有过义兵们的抵抗，但肯定没有像朴氏这样完美地制服他们的情况。所以朴氏这个人物是虚构的，该人物暂时压制了清朝的事实也是完全虚构的。那么朝鲜人为什么使丙子胡乱这一背景登场，将女性朴氏塑造成为解决这个问题存在呢？为什么虽然在战争中败北，但其中加入了暂时向清朝雪耻的内容呢？在之后进行的课程中，我们将对此进行更具体的了解。

韩国古典小说出现的多种背景中，首先来看一下以现实世界中存在的物理时空作为背景的类型。从最贴近我们生活的日常时空开始讲一下。

日常时空。那么，在朝鲜时代，日常时空是什么样的地方呢？事实上，限制其范围是不合理的。朝鲜时代的时间范围非常广，地域范围也绝不狭窄。在这广阔的时空中生活着无数的人，他们经历的每一天都是日常。所以不可能限定范围。但我们经常说日常的时候，会想起在特定时代或社会中典型的景象。那么一提到朝鲜时代，会想到什么呢？如果将其与古典小说的时空联系起来思考，首先想到的空间背景是‘家族’。

众所周知，朝鲜时代是农耕社会。所以家庭成员的变动或家庭移动并不频繁。人们常说中世纪或封建社会是束缚在土地上的时代。这给人一种强烈的将人类定义为被动存在的感觉。相反，当时人们可以以给定的土地为基础，经营稳定和充实生活。人们通常在出生的地方长大，在那里结婚，生下子女，组成家庭。最近韩国社会最大的问题是居住。年轻人回避结婚的原因之一就是居住问题。也就是说，很难找到房子，如果这样看的话，以土地为基础的朝鲜社会秩序看起来会更好。

总之，家庭或家族在朝鲜社会是非常重要的空间。与现在的家庭相比，家庭成员更多，因此家族内部形成的关系并不只是私人关系。私人关系和公共关系都存在。这些关系所产生的影响也十分重要。家族内发生的事件甚至会扩大到社会乃至国家层面的问题。所谓修身齐家治国平天，这种结构性认知不是白来的。

韩国的古典小说中有被称为‘家族小说’的类型。属于这种类型的作品，顾名思义就是以家族内发生的事件为中心展开的故事。朝鲜时代通常被称为家长制社会。家长位于家长制权利的顶点。因此，家族成员从家长那里得到怎样的评价非常重要。因为根据评价的不同，自己的地位也会有所不同。这些家族的特性如实地反映在古典小说中。因此，家族小说中经常出现家族成员之间的矛盾。矛盾的主人公通常是女性。在女性中，与家长有着紧密的关系，即家长的正妻或妾室的情况必然很多。因为这些人必须不断得到家长的信任或一直维持得到的信任。最终，这种矛盾大体上以善良的人得到福报，恶人受到惩罚的‘惩恶劝善’的结局结束。算是大团圆结局。

但看家族小说时，重要的不是以惩恶扬善结束的事实。而是应该观察到结局为止，矛盾以怎样的方式发展的。就像韩国的狗血剧，结论多少有些明显，即便如此人们每集都看，与其理由相似。虽然结论已经确定了，但人们收看电视剧的理由很有可能是在这个过程中。

在展现家族小说特征的众多作品中，我选择了《谢氏南征记》这部作品。通常认为家族小说是从17世纪开始出现的。《谢氏南征记》就是17世纪出现的作品。在这部作品中，家长刘



延寿登场，以围绕刘延寿这个人物，正妻谢氏和妾室乔氏发生矛盾而展开。虽然我说会引发矛盾，但说诱发矛盾的人只有乔氏也不为过。乔氏想尽办法把谢氏赶出家门，甚至还计划除掉谢氏。乔氏之所以产生如此残忍的想法，家族这个空间具有的结构特性产生了很大的影响。

家族最重要的课题是什么呢？是继承家族的存在，即生下继承家长的儿子。因此，对于嫁入家族的女性而言，生儿子是一个目标。但如果目标不能实现，就会出现矛盾。如果正妻不能生儿子，哪怕再娶个夫人，也一定要生个儿子。这样一来，自然而然地由一名家长和包括正妻和妾室在内的多名夫人共同组成了家族。而且其中生下儿子的夫人，在家族内会得到认可。《谢氏南征记》也是如此。

虽然谢氏是正妻，但因为不能生孩子，所以乔氏进入了这个家族。乔氏最终生下了一个儿子，得到了认可。但此后，随着谢氏也生下了儿子，矛盾进一步加深。总之，家族是朝鲜时代人们生活的舞台，也是形成社会关系的空间。所以在此大大小小的矛盾很多。这种矛盾在古典小说以各种事件表露出来。

让我们通过《谢氏南征记》了解一下被称为家族的日常时空在韩国古典小说中是如何被描绘的。像日常时空一样，以现实世界中存在的时空为背景的情况，也可以找到利用历史时空的情况。在历史上实际存在的时空中，强烈地刻印在人们的经验和记忆中的时空，即发生非常令人震惊的事件的时空被用作古典小说的背景。如果说朝鲜社会中最令人震惊的事件，那么其他国家的入侵，特别是16~17世纪周边国家日本和清朝依次入侵朝鲜的‘壬辰倭乱’和‘丙子胡乱’就是代表性例子。

壬辰倭乱是日本入侵朝鲜，丙子胡乱是清朝入侵朝鲜。两国都没有一次性结束对朝鲜的进攻。日本在壬辰倭乱后发起了丁酉再乱，清朝在丙子胡乱之前曾发生过丁卯胡乱。从最早的入侵-壬辰倭乱到最后的入侵-丙子胡乱，这4次侵略在不到40年的短短的时间内集中发生了。只说了他们入侵朝鲜的战争。

除此之外，朝鲜军还多次参加了外国的战争。所以即便说朝鲜人的DNA中刻印着这一伤口也不为过。朝鲜在从16世纪过渡到17世纪的时期，受到了巨大伤害，社会也发生了很大的变化。所以以当时的战争为背景创作了很多作品。不只是在战争之后创作。在朝鲜后期，这些作品一直被广泛享有。

本课时我选了其中的两部作品。首先介绍的作品是《崔陟传》。该作品以壬辰倭乱和丁酉再乱，即日本侵略朝鲜的历史事件为背景。然后将家族设定为主要登场人物。这些家族因被入侵朝鲜的日军而四散飘零，最终彼此生死不知。但在这部作品中发生了不可思议的事情。像这样不知道去了哪里，甚至不知道是否还活着的家人们，大部分都再次重逢了。重逢的场所也很独特。虽然最终都聚集到了朝鲜，但在此之前，在越南、中国、朝鲜的其他地区等东亚多个场

所，家人戏剧性地生还了。这简直就是奇迹，而且发生了很多次。家人戏剧性的相逢令人难以置信，甚至让人觉得这部作品过于虚假。但是，如果将当时战争的情况刻画在脑海中，回想当时的情况的话，我认为这个故事可能真的是事实。并且自然地眼眶泛红。因为能感受到他们为了再次见到家人而付出的努力。

但在这里我们还有一个需要关注的地方。这种感动并不是只有家人之间才能感受到的。追踪这些家人是如何再次见面的具体过程，会发现其中总是有‘周围人的帮助’。但是周围的人是谁呢？都是国籍不同的外国人。当时说是东亚战争爆发的状态也不为过。在这种情况下，拯救其他国家人的生命，照顾其他国家人的生活，这真的有可能吗？至少在这部作品中是可能的。人们在看他的国籍之前，先认知到他是人。顾名思义，很有人情味地对待他。因为是以战争为背景，所以可能只会想到出现与对方国家激烈战斗的场面的作品。这样互相帮助的美丽场景出现在了这部作品中。那么，牢牢刻印下战争创伤的朝鲜人为什么创作并享有多国人民彼此融合的小说呢？之后，我们将具体欣赏作品的同时寻找其理由。

这里要介绍的另一部作品是《朴氏传》。该作品以清朝入侵的丙子胡乱为背景。这部作品的主人公朴氏是女性。而朴氏是狠狠地教训了曾引领丙子胡乱的清朝将帅龙骨大等一伙人的人物。女性独自面对清军，在现实中是不可能成立的状况。在这部作品中，同时出现了清朝侵略朝鲜的丙子胡乱这一历史事实和朴氏这个虚构人物十分活跃，教训清朝势力的想象的故事。

大家知道丙子胡乱这一战争吗？事实上，这场战争，甚至不能说是战争的程度，是清朝单方面的获胜。虽然朝鲜国防力量薄弱，但最重要的是朝鲜完全没有做好应对具备新型战争能力的清朝的准备。所以朝鲜瞬间失去了主导权，朝鲜的国王逃往南汉山城避难。在那里被孤立的仁祖最终宣布投降。最近通过《南汉山城》等电影介绍过的丙子胡乱被评价为朝鲜历史上最耻辱的瞬间。

但在《朴氏传》中，朴氏只是暂时教训了一下清朝势力。朴氏虽然是虚构人物，但有没有其他将领像朴氏一样暂时教训过清朝的情况呢？虽然有过义兵们的抵抗，但肯定没有像朴氏这样完美地制服他们的情况。所以朴氏这个人物是虚构的，该人物暂时压制了清朝的事实也是完全虚构的。那么朝鲜人为什么使丙子胡乱这一背景登场，将女性朴氏塑造成为解决这个问题存在呢？为什么虽然在战争中败北，但其中加入了暂时向清朝雪耻的内容呢？在之后进行的课程中，我们将对此进行更具体的了解。

## 3차시 새롭고 낯선 공간

如前所述, 日常时空、历史时空作为古典小说中的背景, 被描绘成多种面貌. 这些都符合当时创作和享有古典小说的人们的喜好. 对物理性存在的现实世界的关心并不仅停留在对我或我们所经历的关心上. 好奇的空间也成了古典小说的背景. ‘新鲜而陌生的空间’正是这种.

本课时将《洪吉童传》中出现的栗岛国、《裴裨将传》中出现的济州岛以‘新鲜而陌生的空间’为主题放到了一起. 其实这两个空间看起来非常异质. 栗岛国通常被评价为理想社会, 在《裴裨将传》中, 济州岛是主人公裴裨将遭殃的空间. 所以可能会反问, 怎么能将性质完全不同的两个空间合二为一呢? 但也有容易想到的想法. 两个地方都是‘岛’. 是孤立的空间, 是与外部世界隔绝的空间. 像这样, 这两个地方是主人公之前没有经历过的全新的空间, 因此对这个地方一无所知, 这一点是共同的. 更何况, 这两个地方对主人公而言是一个‘新鲜而陌生的空间’, 这一点似乎并不相同.

以故事情节为主接触过两部作品的人 would 认为, 在《洪吉童传》中洪吉童非常顺利地定居在栗岛国. 但事实绝非如此. 洪吉童和他的一群人在征伐栗岛国的过程中, 与当地原住民发生了不少矛盾. 相反, 会认为《裴裨将传》的裴裨将在济州岛每次都遭殃. 只看情节的话, 也有可能这样. 但后来裴裨将与济州岛人亲近起来, 还晋升上了高官. 最终, 两个地方对主人公而言是新鲜而陌生的空间, 也是与地区原住民发生矛盾的空间. 而且, 无论是靠武力还是和解, 最终两位人物都获得了很高的地位. 这样看来, 两部作品中新鲜而陌生的空间可以说是拥有身份优势或权威的主人公进入其中, 与内部成员发生矛盾后, 作为那里的主体或一员生活的地方.

首先讲一下《洪吉童传》. 可以说没有韩国人不知道这部作品, 对韩国人来说是非常熟悉的作品. 现在这句话也可以适用于对韩国感兴趣的外国人. 因为这是学习韩国后必然会遇到的作品, 所以对韩国感兴趣的外国人也不会不知道这部作品. 有些外国学生向我流畅地讲述了洪吉童传的主人公特点和情节. 只是有我们一定要阐明的事情. 无论是韩国人还是外国人, 相较于了解这部作品的真实面貌, 更多的是以人们再次确立意义的信息、整理的信息为基础, 记住了这部作品. 大家是通过什么渠道知道《洪吉童传》的故事的呢? 听过谁的说明吗? 还是读过童话书之类的? 我不认为以这种方式接触《洪吉童传》有问题. 但如果不是直接整理原文, 而是经过再次加工时, 很多情况下无法很好地转移原作的特点. 尤其是《洪吉童传》. 理由是, 相较于我们自己思考洪吉童这个人物和这部作品的主题, 我们更习惯于遵循已经确定的结论. 我们像公式一样背诵着洪吉童是义贼, 征伐栗岛国是建设理想社会. 韩国人是在准备

入学考试时背诵的。外国学生的情况也大同小异。因为大部分媒体都以上述方式整理了《洪吉童传》的特征。如果《洪吉童传》真的是这样，那么这部作品应该看作是充满义气的主人公为贫穷、饥饿的百姓做出义贼的行为，最终怀有善意的主人公在新的地方创造了新世界。但不管是什么版本都没有关系，应该亲自看一下实际作品的展开情况。

洪吉童刚开始确实是为了别人进行了充满义气的行动，但这种行动并不是一贯的。后来洪吉童的存在被世人所熟知，影响力也越来越大，与其说是义举，不如说是为了与国家及国王进行协商而进行的行动。当时洪吉童的行踪根据阅读者的不同，可能会有不同的解释。但必须承认，征伐栗岛国在此前的解释中存在问题。如果说征伐栗岛国是建设理想社会，那么就应该存在将此处建设成理想社会的痕迹。但这里的征伐从一开始就是以非常暴力残忍的形态展开的。洪吉童和他的同伙用武力镇压了此地的势力。在不知道洪吉童一伙人为何攻击自己的情况下，栗岛国的将领面临了死亡。

这里的百姓也一样。百姓们在讴歌太平盛世的栗岛国过着幸福的日子。但有一天占领军突然闯入了。即便只是看到这里，洪吉童的栗岛国征伐无法被视为建设理想社会也是非常明确地。

本课时我们将把栗岛国作为空间的对象，称之为以建设理想社会为名包装的暴力。因为如果说《洪吉童传》的最终志向是建设新社会，那么至少那不是理想社会。可以确认洪吉童所体现的世界，即背景与这部作品的主题密切相关。

下面来讲一下《裴裨将传》。本课时将以‘新鲜而陌生的空间’为主题，一起考察《洪吉童传》和《裴裨将传》。不知道大家是否听过很多次《裴裨将传》。如果大家是韩国人，至少会听过一两次这个故事。因为《裴裨将传》在韩国是像传统童话一样，被广泛阅读的作品。即使是外国人，大家也可能在接触韩国时听过一次该作品。但这部作品也和《洪吉童传》一样，与其说是直接接触原文或原文翻译，不如说大部分情况是接触别人多次整理的内容，也就是二次加工的内容。那么二次加工的《裴裨将传》的特点是什么呢？主要关注的是裴裨将吃苦头的内容。

居住在首尔的裴裨将接到赴任济州岛的命令后，漂洋过海去济州岛。济州岛有很多漂亮的女性，再加上要远离家人独自生活，所以很容易陷入女性的诱惑。裴裨将豪言壮语地表示绝对不会陷入女性的诱惑。但去济州岛没多久，就被妓女爱娘深深迷住了。在这个过程中做出了滑稽的行为，成为了人们的嘲笑对象。实际上，即使亲自阅读该作品，也能看出大部分都是裴裨将吃苦头的内容。但不仅是韩国的古典小说，无论是哪个国家，各位在阅读古典小说时需要注意的一点。

古典确实在某些方面是不亲切的文章。另外，也可以从多方面进行解释。以《裴裨将传》为例。在这部作品中，不仅有有趣的故事，还有裴裨将吃苦头的场面。但这部作品并不只有这种

内容. 在作品中间, 还会遇到轻视济州岛和济州岛人的裴裨将的偏见. 也就是说, 裴裨将贬低该地区的人和文化的倾向较强. 在这部作品中, 裴裨将豪言壮语说要远离女色, 表面上是不接近女性的意思, 但背后却包含着蔑视、无视济州岛文化的视线. 在判断与妓女相处是好是坏之前, 应该追究在这部作品中裴裨将远离妓生的意图. 但如果只关注裴裨将吃苦头的故事, 那么他对济州岛的态度就会沉到水面下, 看不清楚. 被某人二次加工的故事中很少体现出这种特征. 这也与古典可以以各种方式解释有很大关系.

再来说一点. 裴裨将是接到命令去了济州岛吧. 这样的他吃尽了苦头离开了济州岛还是没有离开呢? 对于以故事情节为中心学习《裴裨将传》的人来说, 对结尾部分的记忆可能会模糊不清. 因为不太强调. 裴裨将没能离开济州岛. 然后在济州岛停留一段时间后, 有一天裴裨将被命名为旌义县监. 旌义是济州岛一个地区的名字. 县监就是成为那里的管理者的意思. 在济州岛做出那么多错误行为的他, 怎么会成为县监呢? 可以说, 这是中央官僚在与地区居民共存期间, 被编入他们的文化的过程. 也就是说, 在这部作品中, 成为作品舞台的济州岛这一背景, 与作品的主题有着很深的关联.

到目前为止介绍了物理性实际存在的现实世界, 以此为背景的古典小说的类型及其类型中本课程将涉及的作品. 大家觉得怎么样呢? 大家有没有觉得古典小说的背景比大家想的更加多样呢? 现在只介绍了一半左右. 接下来再来看一下.



## 4차시 꿈속 시공간과 환상적 시공간

前面讲述了物理性存在的现实世界的时空，以及作为古典小说的背景登场的情况。还介绍了以这种时空为背景的作品。但古典小说中不是只出现了这种物理存在的背景，也出现了人类在梦中相遇的空间，人类通过想象创造的空间。这种空间当然不存在于现实中，但这些空间是以现实的问题意识为基础而实现的。因此，虽然现实中不存在，但必然包含着极其现实的问题。

其中首先介绍一下‘梦中时空’。每个人都会做梦。虽然梦境是无意识的体现，但其中必然映射出我在现实中感受到的不足或愿望。所以我的现实和梦境有着很深的关联。如果这种梦境在小说中作为某种装置使用，那么主人公‘我’的现实和梦中的关联性必然会非常高。因为故事具有向着一个方向前进的属性，如果主人公做梦了，那必然为了与主人公人生的某种局面建立关联。我们通常把日常生活中经历的没有特别意义的梦叫做空梦。小说中出现这种梦境的情况并不多。必然做了所谓意味深长的梦。梦境就这样在小说中意味深长。具有这样的功能。

但即便仅限于古典小说，梦境的类型和功能也非常多样。所以在本课时，无法涉及所有类型。在这里，我们将了解其中最具代表性的‘梦游录’的梦境。梦游录是只有在韩国古典小说中才能确认的、类型非常独特的小说。梦游录具有所谓的‘幻梦结构’的叙事结构。在这种幻梦结构中，主人公在现实中，做梦后进入梦中世界，从梦中醒来后重新回到现实。这时主人公的身份如何维持或改变也是非常重要的问题。梦游录中主人公的认同感无论是现实还是梦境都是一样的。所以刚开始登场的主人公维持着自身的认同感，进入梦中的世界，再次从梦中醒来时也维持着自身的认同感。不是在做梦或梦醒时，主人公的认同感突然改变，增加故事兴趣的方式。然而，这种梦游录的类型具有明显的目的性。那就是主人公将现实中存在的问题意识原封不动地带到梦里。

换句话说，主人公在现实中拥有的不满、不足或愿望将在梦中正式展开。实际上阅读梦游录作品的话，可以发现在梦里经常会遇到一群人。这些人大体上都是符合主人公意愿的人，能够理解主人公的处境的人。所以主人公进入梦里，解决我在现实中难以解决的事情。如此看来，在梦游录中，梦中世界是治愈的空间。

本课时将讲述的作品《寿城宫梦游录》也在梦中实现了主人公们在现实中无法实现的愿望。这个故事的主人公金进士和云英在现实中虽然彼此相爱，但却处于无法将爱意表露在外的可怜处境。最终，他们只能用极端的方式表达自己的心情。在现实中永远无法实现这个愿望。这样的他们在梦里笑着见面。在梦里，这个愿望实现了。因此，在作品中梦中的舞台非常漫

长。时空背景是体现作品主题意识的场所。

下面来讲一下‘幻想时空’。之前说过‘梦’既是幻想，也是以现实为前提的。但与此不同，也存在着幻想时空。因为这种类型本来就多种多样，所以本课时将幻想时空分两种进行考察。其中之一就是阳间与阴间的界限消失的幻想时空。另一种是地面世界和海底世界的界限消失的幻想时空。阳间与阴间的界限消失的幻想时空，在主人公死亡的情况下必然经常出现。

在这里将考察相应作品中的《李生窥墙传》。该作品是代表韩国古典小说的金时习的小说集《金鰲神话》中收录的五部作品之一。这部作品是汉文小说，题目也是汉文。如果解释意思的话，大概就是‘李生窥视墙内’的意思。李生为何窥视围墙，这个故事是如何展开的呢？

简要介绍一下的话，这部作品讲述了相爱的李生和崔娘，崔娘在战乱中失去了生命，这样的二人超越今世和阴间的界限再次相遇，一度陷入深爱的内容。阳间与阴间。所谓人间这种非常庸俗的存在，只知道阳间和阴间各自走的路不同，不知道两条路有什么不同，以及阴间这个空间是什么样的。尽管如此，李生和崔娘还是超越了界限，实现了相遇。因为他们相遇的舞台是崔娘活着时的那个空间，表面上看起来就像人间一样，但崔娘已经不是这个世界的人了，所以从那一瞬间开始他们相遇的舞台就不是人间了，而是幻想时空。那么，打破所谓‘阳间应该按阳间存在，阴间应该按阴间存在’的普遍世界法则，分别处于阳间和阴间中的存在超越界限相遇的理由是什么呢？因为正如大家很容易预想到的那样，因为他们的爱情非常迫切。换句话说，二人的感情非常强烈，甚至要违背普遍的世界秩序。因此，这部作品中幻想时空不仅是单纯地营造了作品氛围，而且也是具体实现作为作品的主题两名男女关于爱情的愿望的空间。即时空的设置与主题实现有着非常紧密的联系。

在韩国古典小说中，经常出现天上和地上这种二元世界观。但事实上，这种二元世界观是彼此紧密相关的。也会彼此互相影响。但《李生窥墙传》并不是阳间与阴间建立关系，而是两名男女试图克服所谓阳间和阴间无法改变的条件，从这一点来看，可以说具有非常独特的地位。

接下来要看的幻想时空是《沈清传》的时空。这部作品同样代表韩国。不久前，在世界性的社交媒体上，美国某位大学生介绍了以该作品的内容为基础制作的歌曲《DIVE》，受到了很多关注。因此，现在对韩国感兴趣的外国人像韩国人一样熟知这一作品。知道《沈清传》的人可能会好奇为什么在幻想时空中介绍这部作品。当然，考虑到该作品的主题和理念，会使人联想到子女的至诚孝心，因此可能会认为‘该作品的背景只是反映了朝鲜后期的现实’。我也认为完全可以这样看。但只是不局限于考虑这部作品的舞台在哪里，有必要进一步考虑一下该作品想要表达的内容在怎样的舞台上实现了。这样看来，沈瞎子和沈清生活的村庄并不是实现该作品想要表达的内容的舞台。这部作品想表达的，即实现沈清的愿望的空间，就是从海里回来

的沈清成为皇后，也就是成为皇帝夫人后，使沈瞎子睁开眼睛的地方。虽然这里是举行盲人宴会的人间世界的现实某处，但考虑到在打造这样的舞台之前沈清所经历的经验，很难单纯地认为这里是现实的空间。实际上，沈瞎子也有在此睁开眼睛，发生了在现实生活中无法发生的、令人难以置信的经历。如此看来，《沈清传》的核心时空就是沈清经历的海底龙宫，成为皇后所经历的空间也应该从其延续线中看待。那么，成为皇后所经历的空间也可以看作是幻想时空的一环。

梦中时空，幻想时空，本课时介绍了这两种虚构的时空。通过该讲座，作为梦中时空的代表作将考察《寿城宫梦游录》。其实这部作品并不是梦游录的代表作。但为了展现韩国古典小说的多种面貌，我选择了这部作品。幻想时空的代表作是《李生窥墙传》和《沈清传》。希望大家留意观察将梦境或幻想设定为背景的作品是如何利用这一舞台的。



## 5차시 깨달음의 시공간

本课时将考察最后一个时空-‘领悟的时空’。这个时空相当独特。出现了两个世界。但这两个世界并不是一方属于另一方的那种从属地位。例如，如果像之前看到的梦中时空一样，如果说梦中世界是为了解决现实世界的问题而设置的舞台的话，那么可以说梦中世界是从属于现实世界的。但这并不意味着像幻想时空一样，两个世界的界限是变得无意义的状态，也就是说，不是阳间和阴间、地上和大海的世界已经打破了界限的状态。在这种情况下，一个人以同样的认同感跨越两个截然不同的世界。我要介绍的这一领悟的时空，也不是一个人以同样的认同感跨越两个世界。那么会是什么呢？

首先前提是，是一个人又不是一个人，以看似相同，但实际不同的认同感的生活在两个世界。有点复杂吧。但这样既相同又不同的存在，既相同又不同的认同感也是相互关联的。这又是什么话呢？应该会有人这样想。很难吧。马上进入具体的作品来了解一下。

作为领悟的时空将介绍的作品就是金万重的《九云梦》。在这部作品中，出现了佛教世界的、名为性真的人物。性真是努力的修行者。这样的他有一天遇到了烦恼。遇到了八仙女，也就是遇到了八名仙女，感受到了人类的情欲。于是性真的老师六观大师把他送到了人间。当时，八仙女也一同被降到人间。性真和八仙女被降到了人间。那么他们看起来像是维持了性真和八仙女的认同感吧。但事实并非如此。以性真为中心举个例子。被贬下人间的性真，在人间以杨少游这个人物出生了。有趣的是，从杨少游出生的那一刻起，就逐渐忘记了性真以前的模样。所有的记忆马上变得模糊了。所以杨少游虽然是与性真无法分割的存在，但也不是完全维持性真的认同感。正因为如此，我才说这是既相同又不同的存在，既相同又不同的认同感。

也许有人会问，性真和杨少游是两个世界中截然不同的存在，不同的认同感，所以不能直接把二者分离开来吗？但这也不简单。这两个存在从某个瞬间开始意识到了彼此。作为杨少游活着的某个瞬间，隐隐约约地想起了性真的生活，结果之后杨少游又回到了性真。所以不能单纯地说二者彼此不同。

在这部作品中出现了两个时空。佛教的世界，人间的世界。这两个世界既不是一方附属于另一方的关系，而且也不是彼此完全不同的世界。所以两个时空是一体而不同的，是不同而一体的。其中存在的登场人物的面貌也是如此。性真和杨少游是一体而又不同的，不同而又一体的。佛教的世界和人间的世界交织在一起。

在此讲座中，以背景为中心对作品进行分类是因为背景的特征对作品的主题也产生了

很大的影响。那么，如此复杂微妙的两个时空与这部作品的主题有着怎样的关联呢？

很多人认为《九云梦》的主题是人生无常，但该作品的主题并非如此。这部作品的主题是领悟到超越以真假二分法区分的真正的道理。性真在度过杨少游的人生回来后，自己意识到人类的欲望是虚幻缥缈的。于是，六观大师对性真说，否定人间世界，肯定佛教世界，是将一个认定为真，另一个认定为假的二分法式的思考，反而反问道，“人间世界和佛教世界中哪一个是真的，哪个是假的，性真你可以区分吗？”以庄子的蝴蝶之梦为比喻。对此，性真承认自己还没有达到最终的领悟，再次修道精进。归根结底，拥有复杂微妙关系的两个时空，是怎样的时空并不重要，重要的是这两个时空各自具有意义并可以共存的事实。

我们是平凡的人类，所以什么是正确的，什么是错误的。什么是好的，什么是坏的，希望快点下结论。但这与人类虚无缥缈的欲望有关。在这部作品中，正是把这种态度当作问题。为什么要区分对与不对，好与坏。如果这部作品的宗旨是这样的话，那么最终在这部作品中，时空并不意味着在现实中存在的时空，或通过想象创造出来的时空，或作为展现在眼前的某种舞台的时空。那么这里的时空是什么呢？是的，就是内心的认知世界。内心中存在的无数的世界，我们在这些世界之间苦恼和彷徨。这时需要不偏向任何一方的姿态。在认为更喜欢什么，认为什么是对的瞬间，这种姿态必然会散乱。然后通过保持这种姿态，才能达到真正的领悟。

《九云梦》使内心的认知世界登场，引导领悟。虽然作品中展现了两个世界的华丽面貌，但在这部作品中强调的是，这两个世界不是真的存在。想说的是，我们的内心可以共存很多世界。一个是对的，另一个是错的认知，使人类进入了根本性的怀疑。例如，如果说快乐是对的，悲伤是错的，那么快乐的大部分时间里，这种认识会使我们高兴，但偶尔悲伤袭来，我们必然会陷入深深的绝望之中。生与死也是一样的。如果我们说生是对的，死是错的，生是好的，死是坏的话，那么在活着的瞬间，这一切都是快乐的，但在死亡到来的瞬间以及想起死亡的瞬间，我们只能陷入深深的怀疑之中。之所以要坚持两方面的思考，是因为我们是所谓的渺小的人类的存在。我们终究要经历喜怒哀乐、生老病死。《九云梦》虽然有点难懂，但给人以深深的共鸣。在读小说的时候，很少有机会像这样思考人生的根本性问题。从这一点来看，该作品展示的两个时空可以成为理解该作品主题取向的重要线索。

到此为止，我们将在这节课上讲述的古典小说中的时空分为6个类型，进行了考察。那么从下一课时开始，将正式了解一下每个时空的特点。希望大家能够一一欣赏作品，沉浸在每部作品的魅力中。谢谢大家。